

# 안전망과

지속가능한

청년활동가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 연결의 힘



# 안전망과

지속가능한

청년활동가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 연결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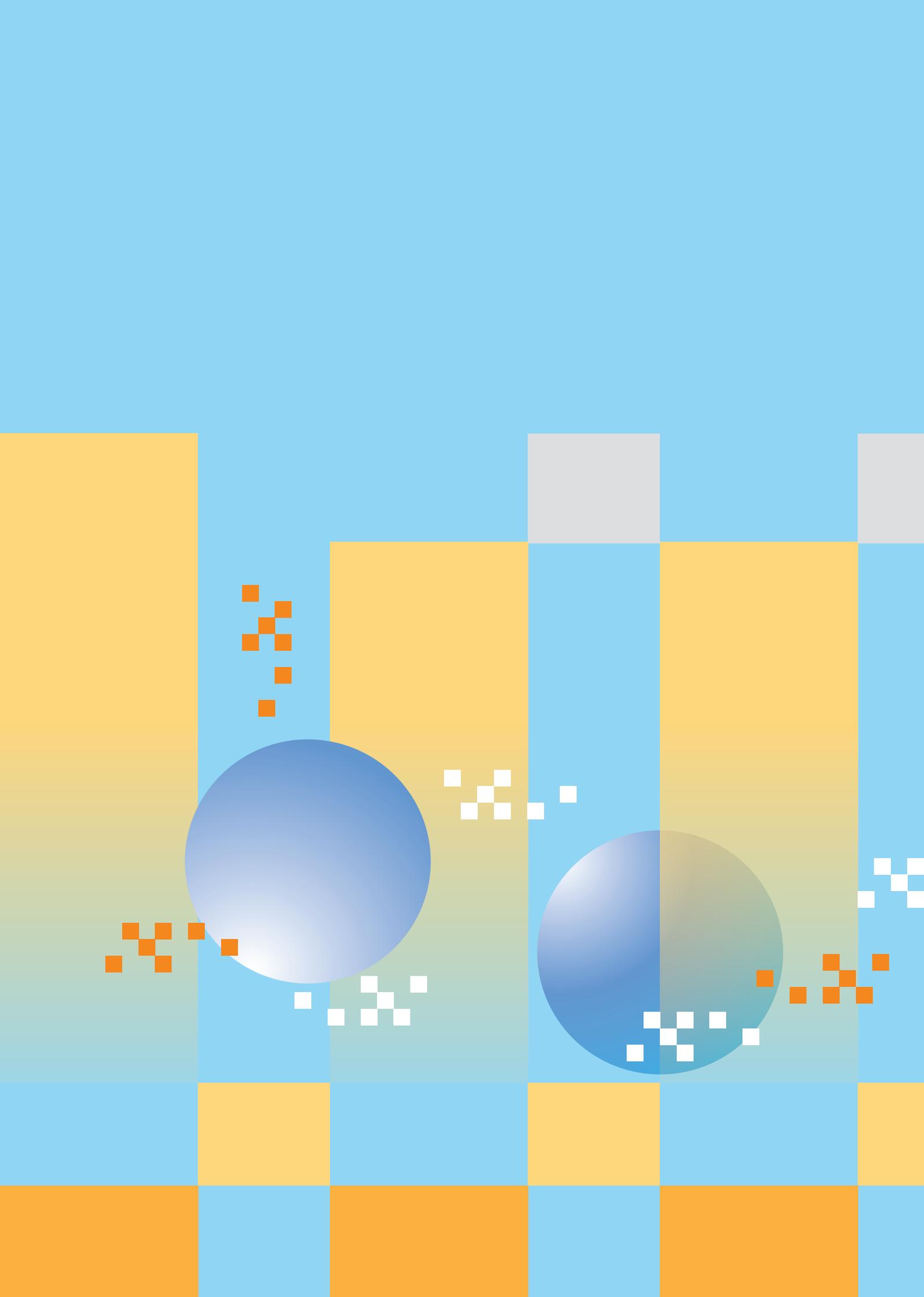
# CONTENTS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응원하는  
안전망과 연결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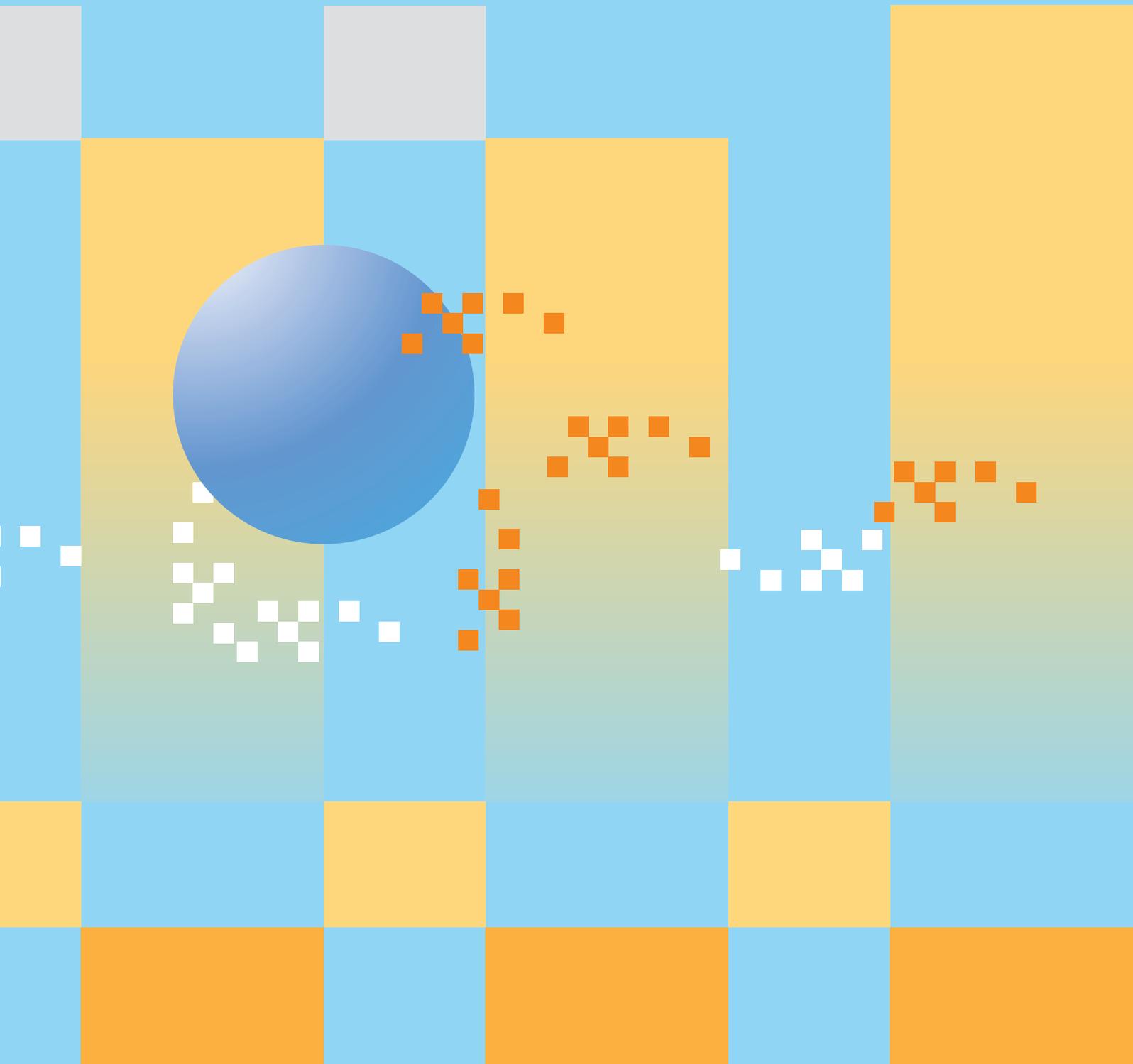
04	<b>사업 소개</b>	
	1 기획 의도	06
	2 사업 내용	07
14	<b>참가자 특징</b>	
	1 기본 정보	16
	2 활동의 의미와 현실적 어려움	19
	3 연도별 참가자 경향	21
24	<b>사업의 효과</b>	
	1 사업의 단기적 효과	26
	2 3개년 설문조사 결과	28
	3 요약 및 소결	35
38	<b>사업의 경험과 의미</b>	
	1 FGI 개요	40
	2 FGI 내용 분석	41
	3 요약 및 소결	58
60	<b>결론 및 제언</b>	
	1 종합 결론	62
	2 제언	64

## 도표

[표] 사업 추진도	08
[그림] 약정서	09
[표] 경제적 안전망 지원 내용	10
[표] 마음짓기학교 만족도	10
[표] 관계망 형성지원 프로그램 내용	11
[표] 관계망 형성지원 내용	12
[표]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콘텐츠 리스트	12
[표] 지역별 참가자 수	16
[표] 연령대별 참가자 수	17
[표] 분야별 참가자 수	17
[표] 신청서 주요 내용 요약	19
[표] 연도별 참가자 경향	21
[표] 연도별 참가자 지원 수요와 기대	22
[표] 주요 상태 평균 점수	24
[표] 사업 효과 답변 평균 점수	27
[표] 3개년 설문조사 질문 항목	28
[표] 관계망의 영향력 평가	32
[표] 희망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 수	33
[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33
[표] FGI 질문안	40
[표] 참여자 목록 및 주요 진술 요약	42
[표] 청년활동가가 경험하는 어려움 의미 분석	43
[표] 조건없는 300만원과 네트워킹이 준 영향 하위 의미분석	49
[표] 사업프로그램 경험과 개선점	52
[표] 청년활동가에게 필요한 것 하위 의미 분석	55



# 사업 소개



# 1 기획 의도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2023년부터 진행해 온 활동가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상근자 10인 미만 단체의 공익활동가 중 총 경력 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신청자 중 매년 20명 내 외의 활동가를 선정해 기초안전망을 제공해왔다. 기초안전망은 경제적 안전망과 관계적 안전망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경제적 안전망을 위해 참가자 전원에게 조건없이 한 번에 300만원이 지급한다. 관계적 안전망은 3박 4일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활동가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됨으로써 형성된다.

이처럼 경제적 안전망과 관계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한 아름다운재단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며 청년 활동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며 청년 당사자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관계망 형성을 함께 지원받을 때 지속가능한 기반을 획득함을 확인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과정에서 청년활동가에 주목하며 경제적 안전망과 관계적 안전망의 두 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2013년부터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지원해 온 단체로, 재단의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하여 함께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설계하였다. 동행은 꾸준히 활동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사(2019)에 기반해 지속가능성 지수를 개발해왔는데, 이 결과에서도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급여, 건강, 역량 부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기존 활동가 대상 경제적 안전망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 활동가의 1인당 부채 현황 등이 타 세대보다 악화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에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공익 활동 영역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체 저연차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소규모 단체의 저연차 청년 활동가들은 대체로 낮은 소득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로로 번아웃의 위기에 처하는데, 이는 활동중단과 이탈의 주 원인이 된다. 여기에 청년이자 저연차라는 위치는 사회적 자본과 발언권 부족이라는 다중적인 어려움과 겹쳐 이러한 어려움을 밝히고 해소하는 시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사업은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위에서 공적 자원으로 이러한 청년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보고서는 3년 간 진행된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지난 성과와 시사점을 종합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년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조건없는 300만원과 관계망 지원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자료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1회의 FGI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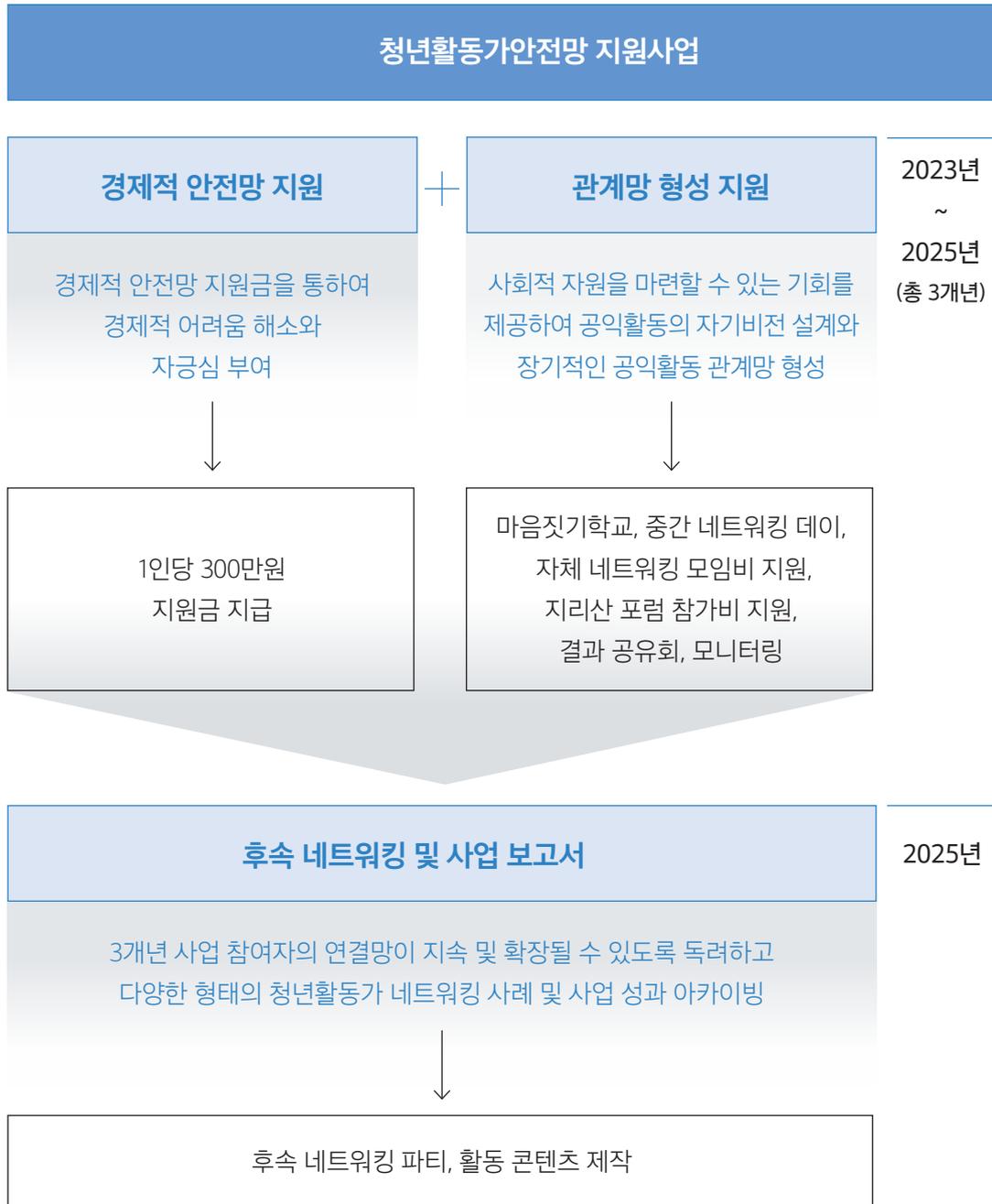
행한 내용을 담고있다.

1장 사업 소개에서는 사업의 기획 배경을 설명하고 사업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기술하여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개요와 3년 간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장 참가자 특징에서는 참가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원 서류에 나타난 활동 진입 계기, 경제적 어려움과 활동의 어려움, 기대하는 변화 등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매년 진행된 사전 사후 설문조사와 3개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4장은 참가자 FGI를 분석한 내용으로 앞선 2장, 3장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5장에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업적 측면, 시민사회적 측면, 연구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2 사업 내용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적 안전망과 관계망 형성 지원.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실험을 처음 시도 했기에 선정부터 실행까지 참가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차년도부터는 서류 나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신청서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서술 항목을 축소하였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성을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원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사업의 목표인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 마련'이라는 지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아카이빙하여 갈무리하고, 3개년 참여자들의 후속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표] 사업 추진도



## 1) 경제적 안전망 지원

경제적 안전망 지원은 일상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청년 활동가들은 청년이자 저연차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인당 300만원의 안전망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300만

원은 저연차 활동가 평균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몇 차례에 걸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에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해 참여자에게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청년활동가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시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것이 '활동가'라는 자긍심을 주는 경험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활동경력이 적은 저연차 청년활동가들은 활동을 인정받고, 공적으로 호명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경험이 공적으로 활동가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염두했다.

## [그림] 약정서

**청년활동가 안전망 지원사업**

**청년활동가 기초안전망 지원사업 '저마다의 공익활동을 짓다'**

**약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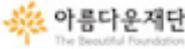
나 \_\_\_\_\_ 는(은) 2023년 8월까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청년활동가 기초안전망 지원사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기초안전망 지원금 300만 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기반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매월 미션 수행', '온라인 마음 수다회', '결과공유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른 활동가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3.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동료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4. 7개월 동안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채우며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사업 종료시까지(8월 말) 현재 소속 단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퇴사 및 소속변경시 지원금 환수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6. 사업 기간 중 현재 근무하는 단체에서 퇴사하거나 소속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1일 참여자: \_\_\_\_\_ (인)



동행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표] 경제적 안전망 지원 내용

분류		횟수 및 기간	내용
경제적 안전망 지원	경제적 안전망 지원금 지원	매년 1회	300만원

## 2) 관계망 형성 지원

관계망 형성 지원은 경제적 안전망 형성과 달리 1년에 걸쳐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짓기학교’가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시작을 함께했고, 사업의 중간 과정을 공유하는 ‘중간 네트워킹 데이’를 열었으며, ‘결과 공유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마무리하고 의미를 다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처럼 관계망 형성 지원이 기획된 배경에는 아름다운재단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며 청년세대가 또래 관계망을 통해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뛰어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행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지수 연구’에 따르면 ‘동료관계’는 활동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공익활동을 시작한 청년활동가들은 비영리 활동의 축소로 인한 네트워크의 부재, 동료-선배활동가와의 관계망 부족을 경험한 경향이 있었기에 더욱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하는 마음짓기학교 역시 참여자 간 깊이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박 4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자연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고민과 생각을 나누며 교류하면서 앞으로 쌓아갈 관계망의 첫 발을 떼도록 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서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응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마음짓기학교는 자연과 가까운 장소인 남원시 산내면 작은변화지원센터 ‘들썩’에서 진행하였는데,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세부 구성은 매년 다르게 기획되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여 반영한 결과 헛수가 더해질 수록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마음짓기학교 만족도 평균 점수 \*5점 만점

구분	2023	2024	2025
진행 전반 만족도	4.6*	4.6	4.8
기간 만족도	3.8	4.2	4.5
장소 만족도	4.7	4.6	4.8
세부 프로그램 포함 만족도 평균값	4.0	4.2	4.6

마음짓기학교에서 형성된 접점이 느슨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고, 꾸준한 네트워킹을 위한 작은 지원과 미션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중간 네트워킹 데이'는 첫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근황을 나누고 현재 몸을 담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서로 활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가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결과 공유회'로 마무리 지었다.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회고를 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간 네트워킹과 변화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업참여를 통한 변화를 나누고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관계망 형성지원 프로그램 내용

분류		횟수 및 기간	내용
관계망 형성 지원	마음짓기학교	매년 1회, 3박 4일	사업 설명, 강연과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중간 네트워킹 데이	매년 1회	근황과 활동 내용 공유
	결과 공유	매년 1회	참여자 간 네트워킹 및 변화 사례 공유

큼지막한 프로그램 사이 사이에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들이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체 네트워킹 모임비'를 지원했다.

기존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동행의 기획에 의해 청년활동가에게 제공되었다면, 자체 네트워킹 모임은 청년활동가들이 스스로 네트워킹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2차년도인 2024년 하반기에 마련된 활동이다. 기획된 활동이 주는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대관비, 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슨한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사업 3차년도인 2025년에는 사업의 범주를 넘어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가 포럼인 '지리산포럼'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원은 저연차 청년 활동가가 역량을 강화하고 선배 활동가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또한 갖는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션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션수행'은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카드뉴스 소식을 공유하고 온라인 협업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표] 관계망 형성지원 내용

분류		횟수 및 기간	내용
관계망 형성 지원	자체 네트워킹 모임비 지원	매년 최대 1회	교통비, 대관비, 식비 지원
	지리산 포럼 참가비 지원	매년 최대 20만원	지리산 포럼 참가비용 지원
	네트워킹 지원	연중 2회	미션 수행, 응원 메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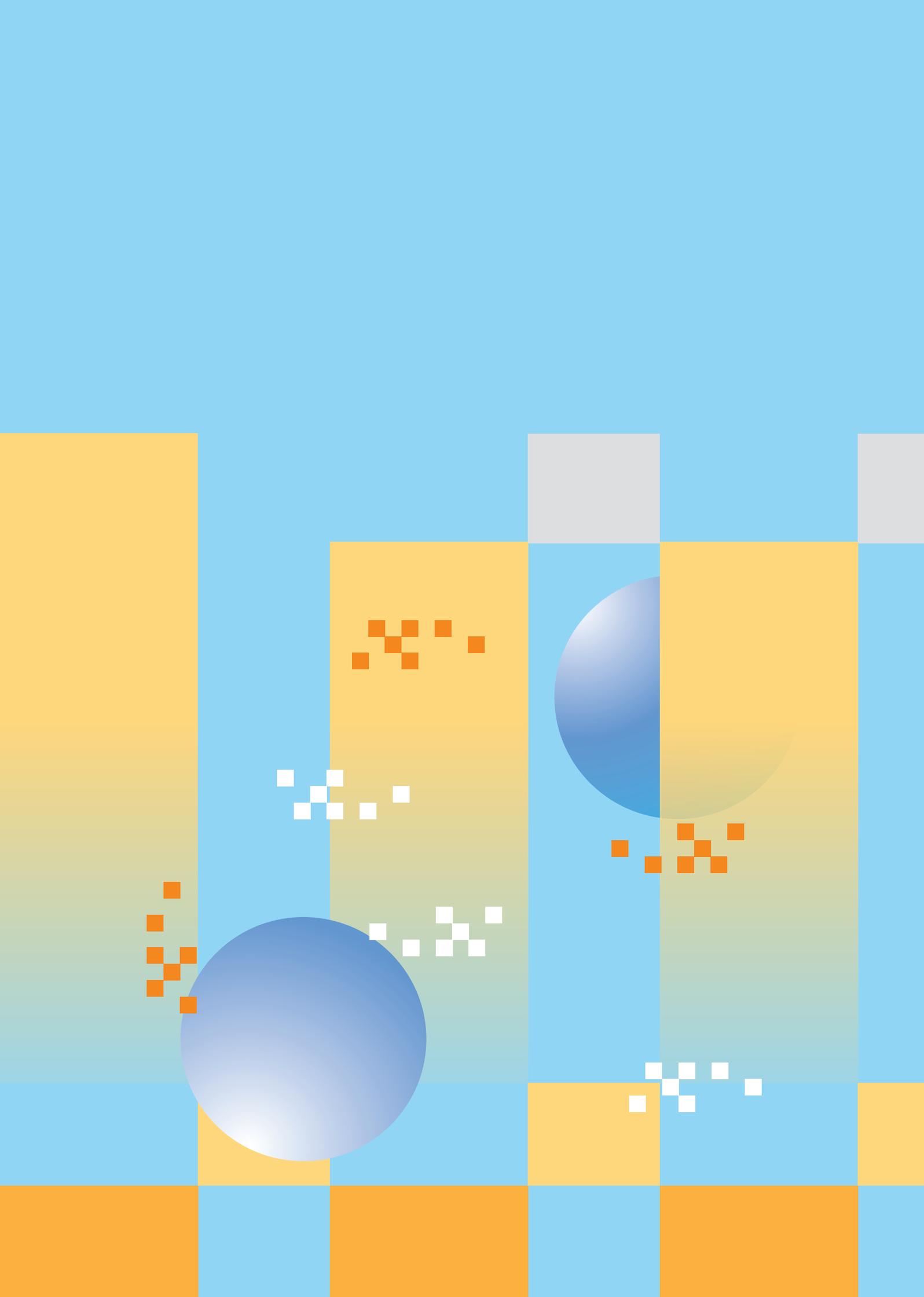
### 3) 인터뷰 및 콘텐츠 사업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매년 참여 활동가 인터뷰, 실무진 대담 등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망을 맺고 활동을 꾸려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가 청년활동가를 이해하고, 변화해야 지속 가능한 활동기반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었다.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콘텐츠들이 동행과 아름다운재단의 콘텐츠채널로 발행되었으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맥락을 갖고 진입하여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민사회에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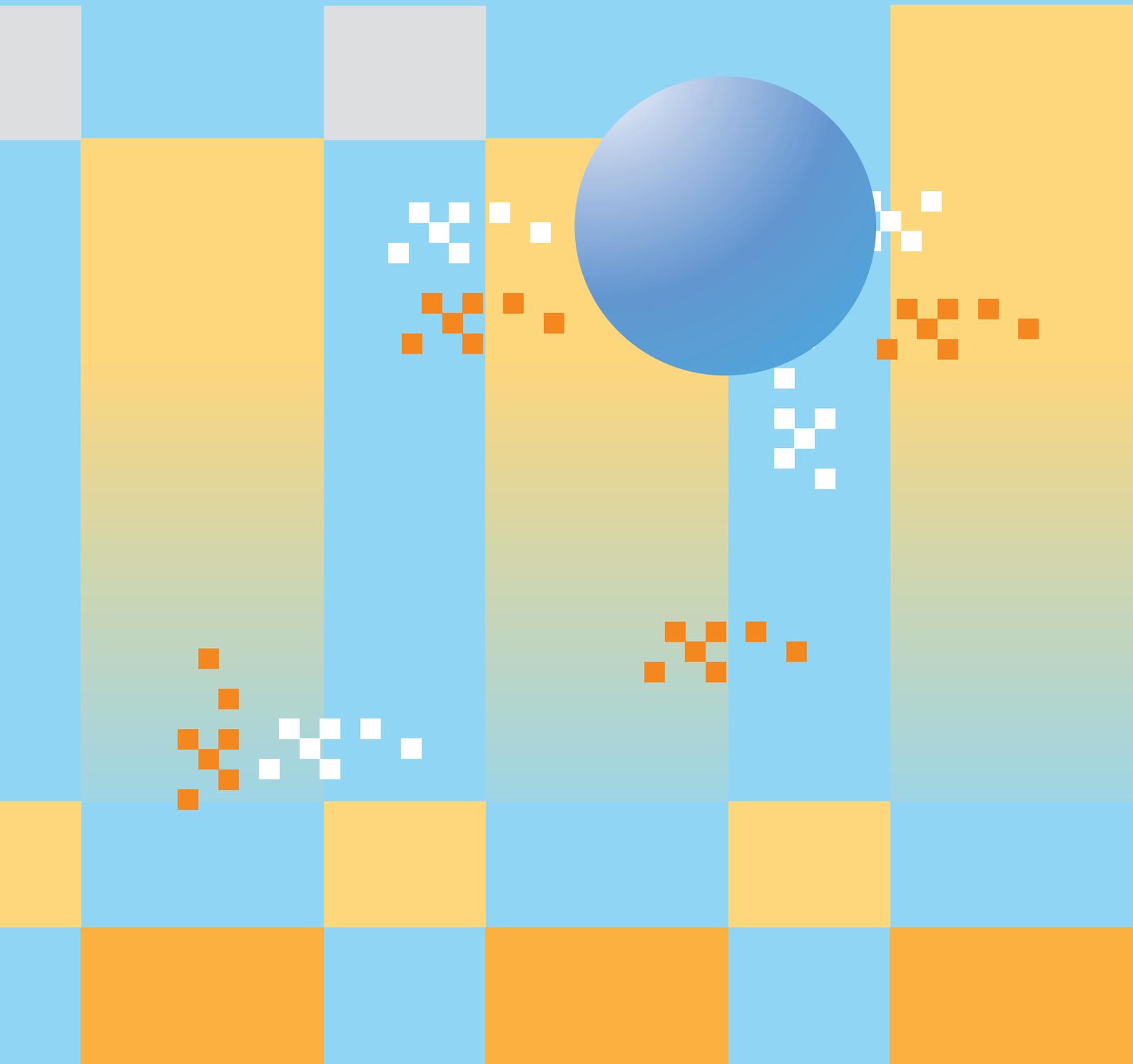
[표]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콘텐츠 리스트

발행일		URL
2026.1.26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 힘들 때 돌아보고 싶은 핀처럼, 함께 걷는 운동화처럼 : 김태환, 진수는 활동가	<a href="http://www.activistcoop.org/story/?idx=169673284&amp;bmode=view">www.activistcoop.org/ story/?idx=169673284&amp; bmode=view</a>
2025.1.15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연결되는 관계들' : 성윤서 활동가, 이민희 활동가 인터뷰	<a href="http://beautifulfund.org/115628/">beautifulfund.org /115628/</a>

발행일		URL
2023.11.15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 '난 혼자가 아니야' 느낀 순간들 : 주지은 활동가, 최민욱 활동가 인터뷰	beautifulfund.org /100934/
2023.10.16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 응원과 지지가 건강한 활동과 연대로 이어지다 : 아름다운재단, 동행 대담	beautifulfund.org /100958/
2023.10.16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 “네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어” : 강동희 활동가, 김수현 활동가 인터뷰	beautifulfund.org /100952/



# 참가자 특징



# 1 기본 정보

## 1) 지역

[표] 지역별 참가자 수

	2023	2024	2025	합계
서울	10	11	13	34
경기/인천	1	4	2	7
강원	0	1	0	1
충청	3	0	2	5
전라/광주	1	5	2	8
경상/부산	5	4	1	10
제주	0	0	2	2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3개년 참여자 67명 중 50%가 서울 소재지의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가였다. 나머지 50%는 서울 외 지역 소재지의 단체에서 일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라/광주와 경상/부산 소재지 단체의 활동가들 비율이 각각 12%와 15%로 높은 편이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에서 일하는 참여자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소재지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는 매해 비슷한 비율로 모집되었으나,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년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연령대 (만 나이)

[표] 연령대별 참가자 수

	2023	2024	2025	합계
20세 미만	1	0	0	1
20~24	2	1	0	3
25~29	8	10	5	23
30~34	5	9	11	25
35~39	4	5	6	15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3개년 참여자 67명 중 25세~29세가 34%, 30세~34세가 38%를 차지했다. 해당 사업은 총 공익활동 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통상 '사회초년생'이라고 불리는 연령대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참여자의 72%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활동분야

[표] 분야별 참가자 수

	2023	2024	2025	합계
교육	2	2	1	5
노동/농민/ 빈민	2	0	0	2
도시/교통/ 안전	2	1	1	4
문화/예술	0	2	0	2

	2023	2024	2025	합계
아동/청소년	1	1	2	4
언론/미디어	2	2	1	5
여성	4	0	5	9
의료보건	0	0	2	2
인권	4	3	2	9
장애인	0	3	1	4
정치/경제/ 사회 감시	0	0	0	0
청년	0	2	2	4
평화/통일	0	4	1	5
풀뿌리/ 지역사회	2	2	0	4
환경/생태	1	3	4	8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3개년 참여자의 활동분야는 고루 다양하였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인권 분야인데, 비율로 따져보면 3년 동안 총 9명, 전체의 약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또 해마다 활동분야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 분야의 경우 2023년에는 4명, 2025년에는 5명으로 해당 년도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0명으로 다른 년도와 수치가 크게 달랐다. 다만 매해 선발되는 인원 수가 20명 정도로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세명의 차이로도 비율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익단체의 특성상 분야로 분류할 경우 여러 분야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자료에서는 간략하게 참여자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당 대표적인 분야 하나에만 포함시켰다.

## 2 활동의 의미와 현실적 어려움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지원 신청서에서 “공익활동가로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경제적 안전망 지원금 사용 용도”, “미래에 내가 꿈꾸는 모습”을 질문하고 있다. 이 신청서 답변을 통해 활동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가한 청년 활동가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 참가자의 신청서를 분석, 요약하였다. 활동 계기와 활동의 어려움, 개인 삶의 어려움과 활동 비전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빈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기술하였다.

[표] 신청서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활동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사회적 사건에 큰 충격을 받다(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세월호 등)</li> <li>▶ 내 삶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험을 하다</li> <li>▶ 성장 과정에서 대안적 공동체에 속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다</li> <li>▶ 봉사활동, 대학 수업 등으로 우연히 활동을 접하며 사명감을 느끼다</li> </ul>
활동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li> <li>▶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동료가 없다</li> <li>▶ 업무량이 과중하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li> <li>▶ 조직 문화가 위계적이다</li> <li>▶ 정책, 인식 등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li> <li>▶ 당사자 지원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남다</li> </ul>
개인 삶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작스러운 큰 지출(병원비, 사고 등)으로 부채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li> <li>▶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li> <li>▶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처치 받지 못하다</li> <li>▶ 주변에서 나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편견으로 바라본다</li> <li>▶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나 자원이 없다</li> <li>▶ 활동으로 인해 이주하여 고립감을 느끼다</li> </ul>
활동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활동 의제의 비전이 실현된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li> <li>▶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가와 함께하고 싶다</li> <li>▶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li> <li>▶ 활동가로서 생존해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li> <li>▶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거나 현재 단체의 대표가 되고 싶다</li> <li>▶ 지역 이주, 공동체 활동 등 대안적인 삶을 구축하고 싶다</li> <li>▶ 건강한 비영리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li> </ul>

신청서 분석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참가자들이 활동가가 된 계기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 내 운동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운동으로 시작해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었다는 흐름은 청년 활동가들에게 드문 경우였다. 공익활동, 사회운동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 스쿨미투 등 사회적인 사건들을 통해 충격을 받고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다가 직접 활동가의 진로를 찾게 되는 경우와 성장 과정에서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부모님이 활동가여서 영향을 받는 등 자연스럽게 활동가의 삶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는 서로 상당히 다른 경험이다. 또한 언론이나 공부를 통해 국내 이슈만이 아니라 난민, 전쟁과 같은 이슈를 접하고 활동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이주 청년, 장애인 가족의 존재, 퀴어 차별의 목격자, 당사자로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도 있었다. 진입 경로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또래 청년 활동가들 간의 횡적인 연결이 의제와 단체, 조직이 중심이 되는 연결보다 어려운 환경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활동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단체 재정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었다. 10인 미만 소규모 단체 활동가들인만큼, 단체 재정이 어렵고,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은 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것은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어려움이었다. 여기에 더해 조직 안팎으로 함께 고민하고 의지할 동료가 없다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어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활동가라는 일의 특성상 지역이나 사회에서 변화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정책적으로 더 나빠진다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 느끼는 어려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례는 아니었지만 당사자 지원을 하는 활동에서, 지원 대상의 폭력적 경험이 전이되거나, 지원 대상의 자살 시도 등 트라우마로 남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전무하여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은 사실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신청서 문항이 “경제적 안전망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1차적, 2차적 어려움에 대한 기술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것이 활동가 일반의 개인적 삶의 문제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소규모 단체 청년 활동가들이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참여자들은 스스로 소비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적은 인건비로도 생활을 잘 꾸려왔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부채가 생기거나,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계속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원가족이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어렵거나 더 나아가 참가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언급되었다.

활동가들의 비전은 기수 별로 가장 차이가 많은 항목이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2025년의 질문이 다소 다르게 설정되어서일 수 있다. “10년 뒤 내가 바라는 사회”를 묻은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활동하고 의제의 비전이 긍정적으로 실현된 세상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활동가로서 5년 뒤 나의 미래”를 묻은 2024년과 2025년 신청서 답변은 ‘활동가’로서 나의 미래와 ‘조직’, ‘공동체’ 레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 많이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의제, 국경을 넘어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가와 만나고 함께 활동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보였고, 2025년 참가자들은 특히 ‘전문성 강화’를 비전으로 많이 꼽았다. 또한 단체의 대표가 된다거나 직접 설립하는 등, 단체의 일원인 아닌, 대표로서 지위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활동가로서 계속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기술은 ‘지속가능성’ 자체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거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대안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답변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 3 연도별 참가자 경향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전, 사후 두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 표는 각 연도 사전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문항을 기준으로 정량적 응답과 자유서술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표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 연도별 참가자 경향

항목	2023	2024	2025
경제적 불안정 인식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관계망 부족 인식	높음	높음	높음
자기돌봄 실천	낮음	낮음	낮음~보통
정서적 소진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활동 지속 불확실성	높음	높음	보통~높음

경제적 스트레스 평균 값은 2023년이 4.15, 2024년이 3.92, 2025년이 4.09로 매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성적인 답변의 경향은 각 해마다 약간씩 달라졌는데, 2023년에는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와 같은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2024년에는 월급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 불안정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활동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늘었다. 2025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유자금 없음이 전체 응답자의 45.5%로,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돌봄과 건강, 소진과 같은 이슈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면, 2024년에는 이런 식으로 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야기 되고 있었다. 2025년 참가자들은 기존 참가자들에 비해서는 건강과 자기돌봄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운동이나 치료, 휴식 등 자기돌봄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참가자들이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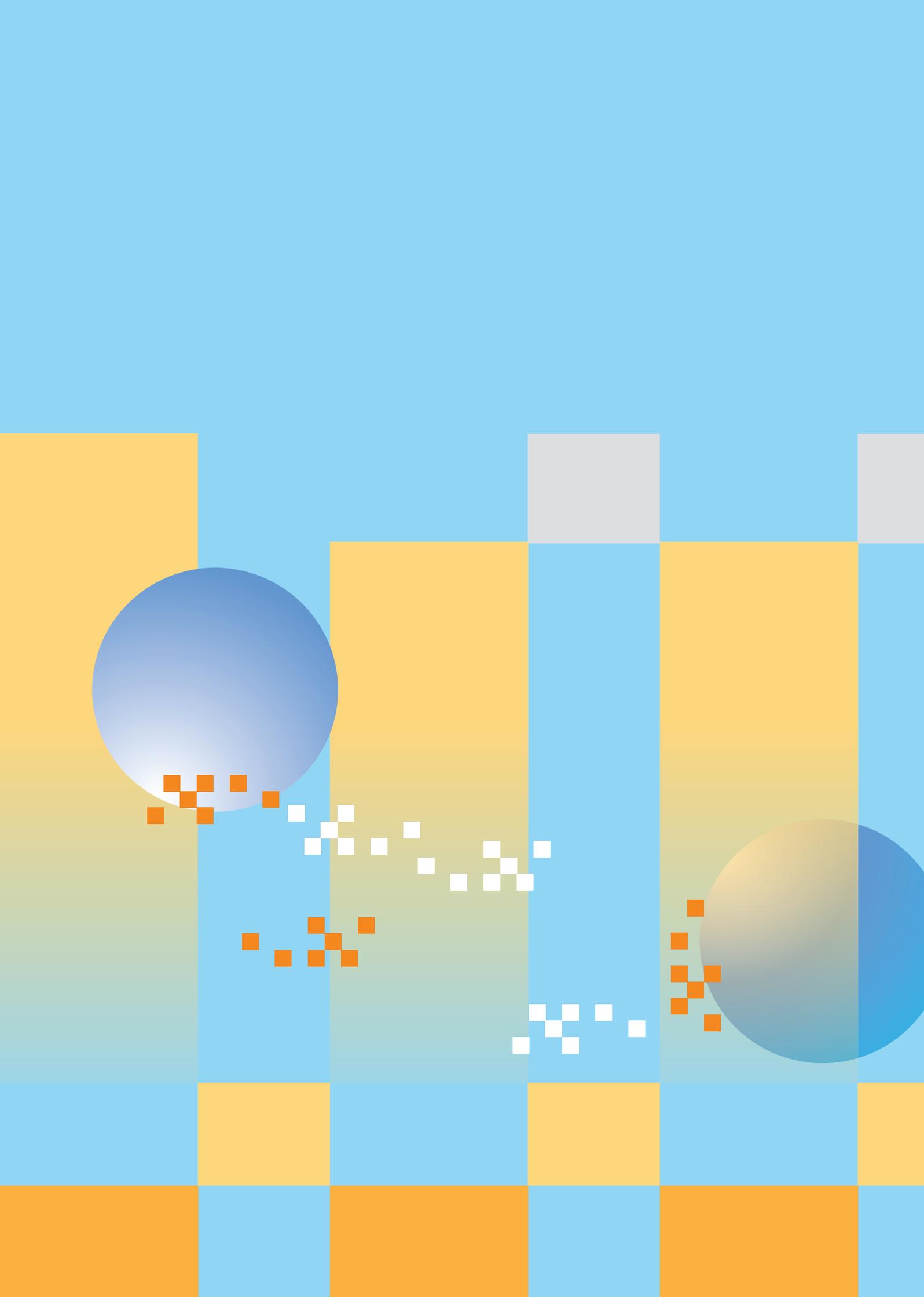
[표] 연도별 참가자 지원 수요와 기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속가능한 공익 활동에 필요한 지원	1위. 경제적 지원 (71%) 2위. 역량 강화 (66%)	1위. 경제적 지원(100%) 2위. 활동가 간 네트워크(66.7%)	1위. 활동가 간 네트워크(90%) 2위. 경제적 지원 (77%)
사업에 대한 기대	▶ 경제적 지원 ▶ 활동 지속가능을 위한 도움	▶ 경제적 지원 ▶ 동료 활동가 네트워크 ▶ 활동 지속에 대한 지지	▶ 경제적 지원 ▶ 동료 활동가 네트워크 ▶ 현재 상태 점검 및 회복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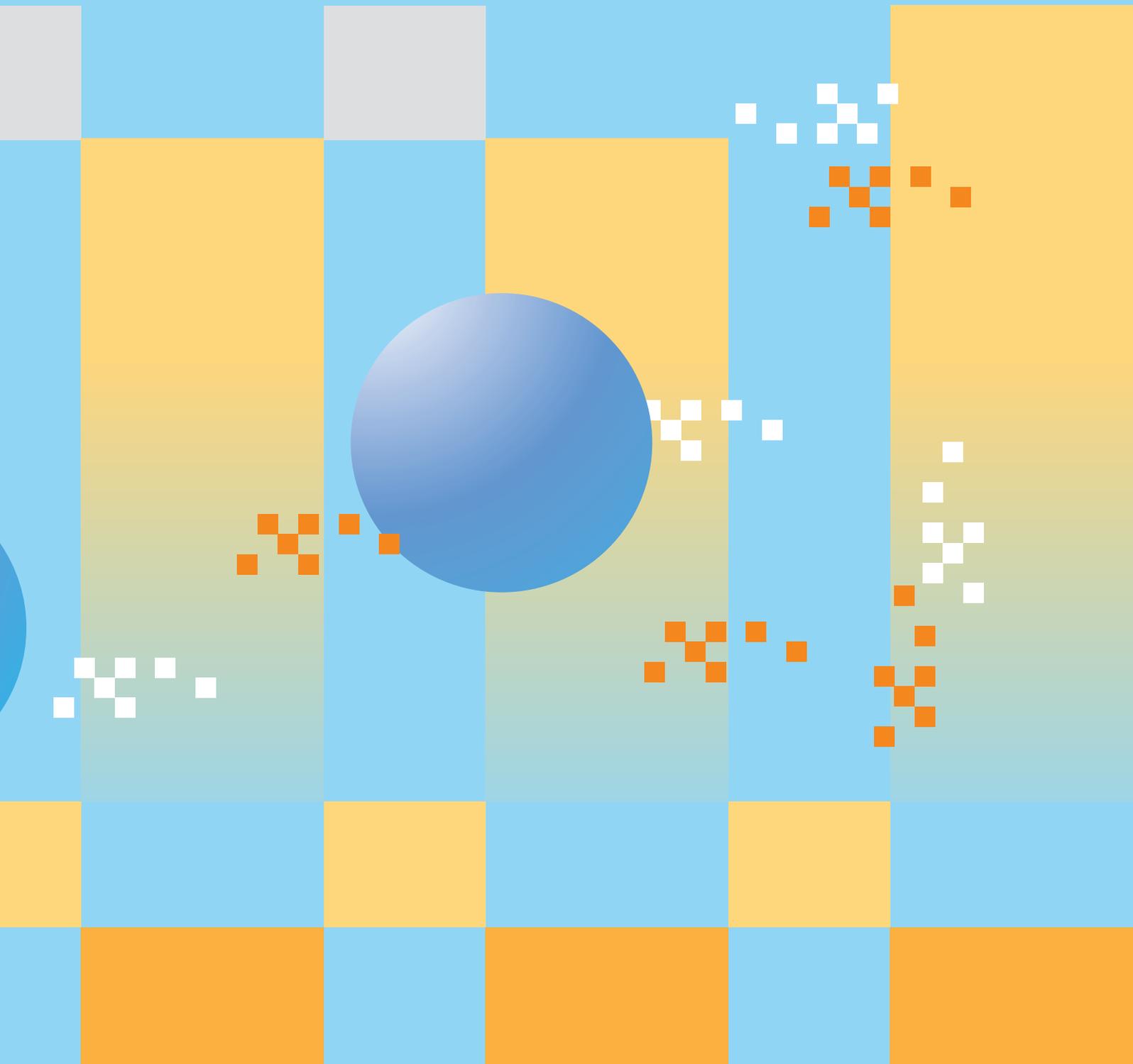
한편, 상태와 함께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도 연도별로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속가능한 공익 활동에 필요한 지원” 항목에서 “활동가 간 네트워크 구축”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적 안전망은 당연히 필요한 전제이지만 관계적 안전망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흐름일 수 있다. 또한 2025년 참가자들의 경우 1기, 2기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이 소진되었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보였다. 이는 2023년 참가자들이 이미 소진되어서 활동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보여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의 참여자 수는 매해 20명 내외로, 각 연도의 설문조사 데이터가 전체 청년 활동가 집단을 대표할 만한 표본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 특성 상 매해 다른 참가자들이 응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 활동가 전반의 경향성 변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기수 커뮤니티별 특징이나, 경제적 지원 외에도 청년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의 효과



# 1 사업의 단기적 효과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매해 익명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업 자체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 사후 설문이 둘 다 진행되었고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의 핵심 지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주요 상태 평균 점수

구분	사전 응답 평균 점수	사후 응답 평균 점수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	3.92	3.52
자기 돌봄 및 건강 수준	2.5	4.5
관계망 만족도	2.0	4.8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후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의미하게 완화되었으며, 정성적인 답변에서도 당장의 생계 걱정에서 활동에 대한 고민으로 초점이 옮겨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돌봄 및 건강 수준은 2.5점에서 4.5점으로 크게 높아지며 참여자들이 병원 진료, 운동, 수면 관리 등 자기 돌봄 자체의 역량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계망 만족도는 사전 조사 2.0점에서 사후에는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해서는 ‘마음짓기학교’에서 또래 활동가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었다는 정성적 답변도 다수 있었다. 다만 핵심 지표에서 관계망이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준 것에 반해, 각 항목별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정도는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도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사업 효과 답변 평균 점수

질문(5점 만점)	응답 평균 점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4.7
자기돌봄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4.3
공익활동 영역에서 동료/선배활동가와 관계망을 넓혀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4.4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도 소폭 달라졌는데 ‘생활비 부족’ 항목이 사전 48%에서 사후 42%로 줄어들었으며 사전 설문에서 의료비 부족, 교육비 부족으로 각 8%씩 집계되었던 항목이 사후 설문에서는 기타 응답으로 분류되어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족”, “저금할 수 없어 비상시(주로 의료적) 사용할 자금이 없다는 것” 등 조금 더 구체적이고 미래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치환되었다. 또한 여유자금에 대한 응답 역시 ‘전혀 없다’는 응답이 사전 40%에서 사후 23.8%로 줄어들어 소액이나마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답변한 지원금 주 사용처는 생활비(40%), 부채상환(25%), 주거비(20%), 의료비(15%)순서로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지출항목에 300만원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소규모 단체 청년 활동가들은 자기돌봄에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조건없는 300만원은 활동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대폭 축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 부채상환, 의료와 같은 급한 지출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이들이 약간이나마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이는 높은 자기돌봄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다만 이것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 2 3개년 설문조사 결과

기간: 2025년 11월 25일 ~ 2025년 12월 9일

대상: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2023년 ~ 2025년 참가자 전원

방식: 온라인을 통한 설문 익명 응답 수집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3년 차를 맞아 참여자들의 활동 지속여부와 관계망 형성 현황, 향후 개선방향 및 사업의 정성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이 종료 된 지 2년이 지난 1기 참가자까지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활동 지속가능성과 관계적 안전망의 형성에 대한 장기적 효과까지 살피고자 하였다.

아래 문항들은 평가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 전체이며, 문항 번호는 설문지 구성에 따라 A~G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1기부터 3기까지의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고 응답자 수는 39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0% 가량이 답변하였다.

[표] 3개년 설문조사 질문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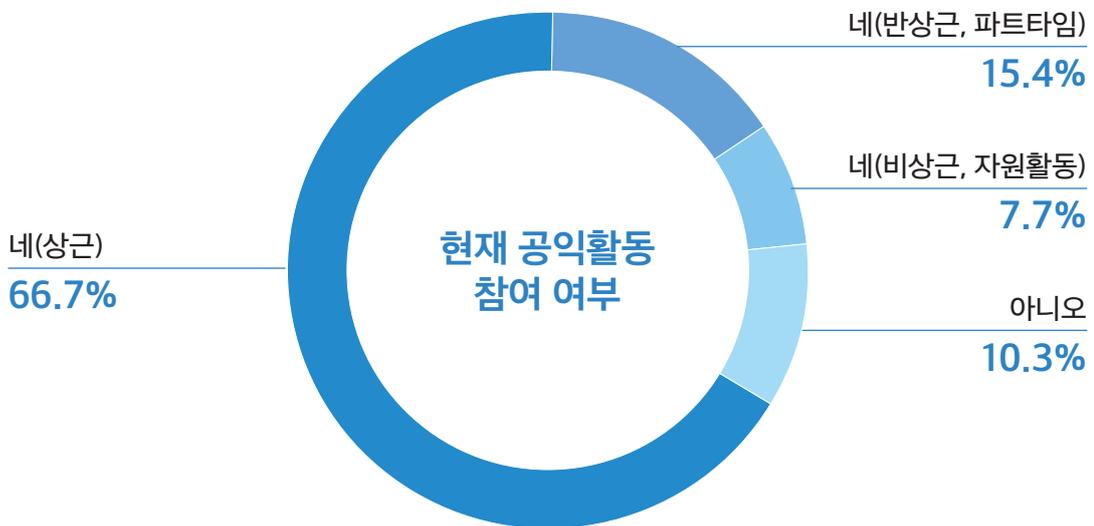
구분	문항 번호	질문
현재 활동 상태	A-1	현재 공익활동을 하고 있나요?
	A-2	지원사업 참여 당시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나요?
	A-3	현재 활동 중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A-4	총 공익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활동 경험	B-1	현재 활동 중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B-2	총 공익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B-3	최근 3년 내 조직을 그만두거나 이동한 경험이 있나요?
	B-4	퇴사·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최대 2개)

구분	문항 번호	질문
비활동 사유	C-1	현재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 2개)
	C-2	이전 공익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C-3	향후 복귀 계획이 있나요?
관계망	D-1	참여자 중 연락하며 지내는 동료는 있나요?
	D-2	어떤 형태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D-3	관계망이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쳤나요?
	D-4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D-5	응원·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D-6	정보·협업 기회를 얻었다
	D-7	도움 요청이 가능해졌다
	D-8	시야 확장 또는 동기부여를 얻었다
	D-9	연대감이 향상되었다
필요 자원·환경	E-1	지원받고 싶은 자원은 무엇인가요? (최대 2개)
	E-2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은? (최대 2개)
지원사업 평가	F-1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나는 ( ) 했을 것이다
	F-2	지원사업이 사라진다면 시민사회는 ( ) 할 것이다
	F-3	나는 활동을 ( )년/개월 더 지속할 수 있었다
	F-4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경정보	G-1	참여연도는 언제인가요?
	G-2	거주 지역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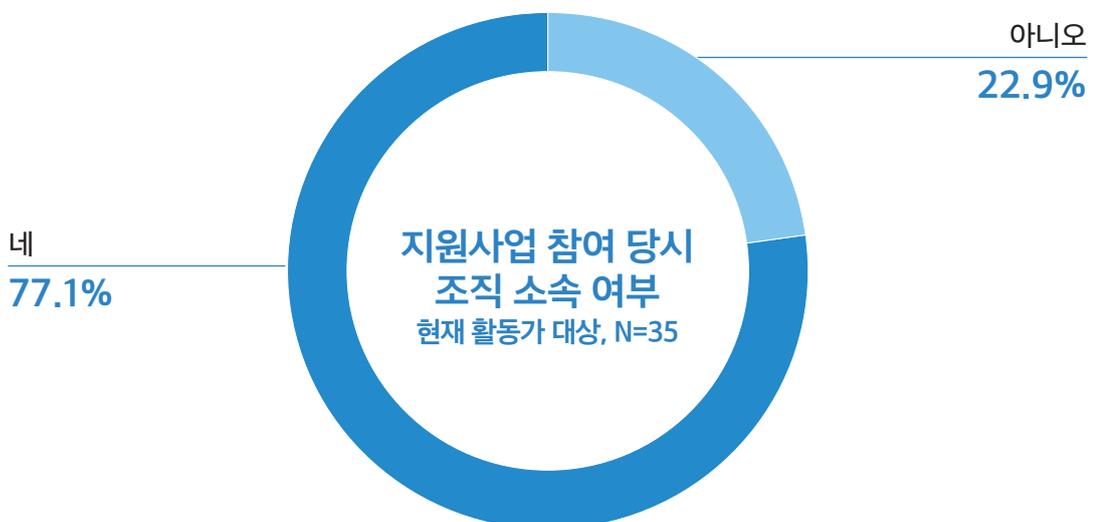
## 1) 현재 활동 상태 및 최근 활동 경험

현재 활동 상태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4명)을 제외한 나머지 90%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4명이 활동을 이탈한 가장 큰 이유는 “적정 수준 이하의 보수 및 처우”(3표), “건강/번아웃”(3표), “조직 지속가능성 문제”(2표)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수치지만 대체로 열악한 조직 상황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명은 향후 공익활동 영역으로 복귀를 고려하고 있으나 시기는 미정이라고 답하여 ‘활동가’로서 살고 싶은 개인 동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프] 현재 공익활동 참여 현황



[그래프] 지원사업 참여 당시 조직 소속 여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 중 77%는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9%는 이직하였다고 응답했다.

## 2) 효과 및 현황

지원사업 참여자 중 현재 연락하며 지내는 동료의 수는 1-2명이 46.2%로 가장 많았지만, 3-4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3.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없다고 답변한 10%의 활동가들과 5명 이상이라고 답변한 18%의 활동가들을 제하면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을 통해 소수의 동료들 만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 방식에서 응답자 거의 전원이 “SNS/단체 채널로 소식보기”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계망 자체가 온라인을 통한 약한 고리 네트워크 위에서 소수의 오프라인 및 친교, 협업 관계가 만들어지는 역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 지원사업 참여자 중 현재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동료 수



[표] 관계망의 영향력 평가

관계망의 영향력	평균 점수	긍정 응답 (4점 또는 5점) 비율
본 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이 공익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4.08	76.9%(30명)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4.41	87.2% (34명)
시야의 확장 또는 동기부여를 얻었다	4.38	87.2% (34명)
연대감이 향상되었다	4.38	87.2% (34명)
활동 관련 정보를 얻거나 협업 기회가 생겼다	4.1	74.4% (29명)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3.82	64.1% (25명)

지원사업에서의 관계망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을 묻는 5점 척도 질문은 대부분 긍정 응답이 높게 나왔다. 그 중에서도 응원과 지지, 동기부여, 연대감 등 심리적인 도움은 87.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긍정형으로 답변하여 큰 도움을 얻고 있음을 비추었다. 이러한 도움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도 4.08점으로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업 기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4.1점과 3.82점, 긍정응답 74.4%와 64.1%로 눈에 띄게 낮은 답변이 나왔다. 다만 여전히 과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가 긍정응답으로 답변하여 관계망 안전망이 효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필요 자원 및 환경

[표] 희망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 수

지원 자원	선택 빈도
주거/생활 안정	16
적정급여	14
건강/심리 지원	13
안전한 조직문화/갈등관리	12
업무량 조절/휴식권	9
교육/성장 기회	7
동료 네트워크	5
복리후생	5
멘토링/슈퍼비전	3
돌봄 지원(육아간병 등)	2
장비/업무환경 개선	2

공익활동가 직접 지원 사업에서 희망하는 지원 자원에 대한 답변(최대 2개 응답)에서는 ‘주거 및 생활 안정’(16명), ‘적정급여’(14명), ‘건강/심리 지원’(13명), ‘안전한 조직문화/갈등관리’(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 생활, 급여 등 경제적인 지원이 확연히 높게 나왔지만 ‘건강/심리 지원’과 ‘업무량 조절/휴식권’(9명)을 일과 삶의 균형 관련 항목으로 묶어보면 21명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요인	선택 빈도
후원자 및 기부 감소 추세	19
생활비·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 증가	16
역량 강화 기회 및 전문 자원의 부족	11
젊은 세대의 시민사회 진입 감소로 생태계 약화	9
정부·지자체의 일관되지 않은 지원정책과 제도 변화	9
수도권 중심의 자원·기회 집중 현상	8
시민사회/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약화	4
기타	3

또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후원자 및 기부 감소 추세’와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 증가’라는 경제적 요인이 각각 19건, 16건으로 가장 높은 요인으로 지목되어, 청년 활동가들이 경기 침체로부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정도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응답자들은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나는…”이라는 문장 완성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다수 답변하였다.

- ☞ 그만뒀을 것이다 / 포기했을 것이다 /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익활동을 종료했을 것 / 다른 직업을 고민했을 것
- ☞ 외로웠을 것 / 무너졌을 것이다
- ☞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

이를 통해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지원사업이 사라진다면…”이라는 문장 완성형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다수 나왔다.

- ☞ 청년 활동가가 감소했을 것이다
- ☞ 위축, 불안정,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이 시민사회 내에서 소규모 단체 청년 활동가들이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활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과 같은 답변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1, 2년의 짧은 기간을 답변하여, 활동 지속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단 현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었음을 드러냈다.

그 외에도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에 대한 정성적 답변 중 대표적인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었다.

- ☞ 비영리 활동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김을 빼주는 역할
- ☞ 정말 힘들던 시기에 ‘내 활동이 지지받고 있다’는 경험을 줌

- ☞ 타지역 활동가들과의 연대가 큰 안전망이 되었다
- ☞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다시 버틸 수 있게 도와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였을 때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도달한 청년 활동가들이 한 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단기적으로 확실히 유의미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의 효과만큼이나 심리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느슨한 관계망과 사적이고 단단한 소수의 관계가 맞물려 가며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요약 및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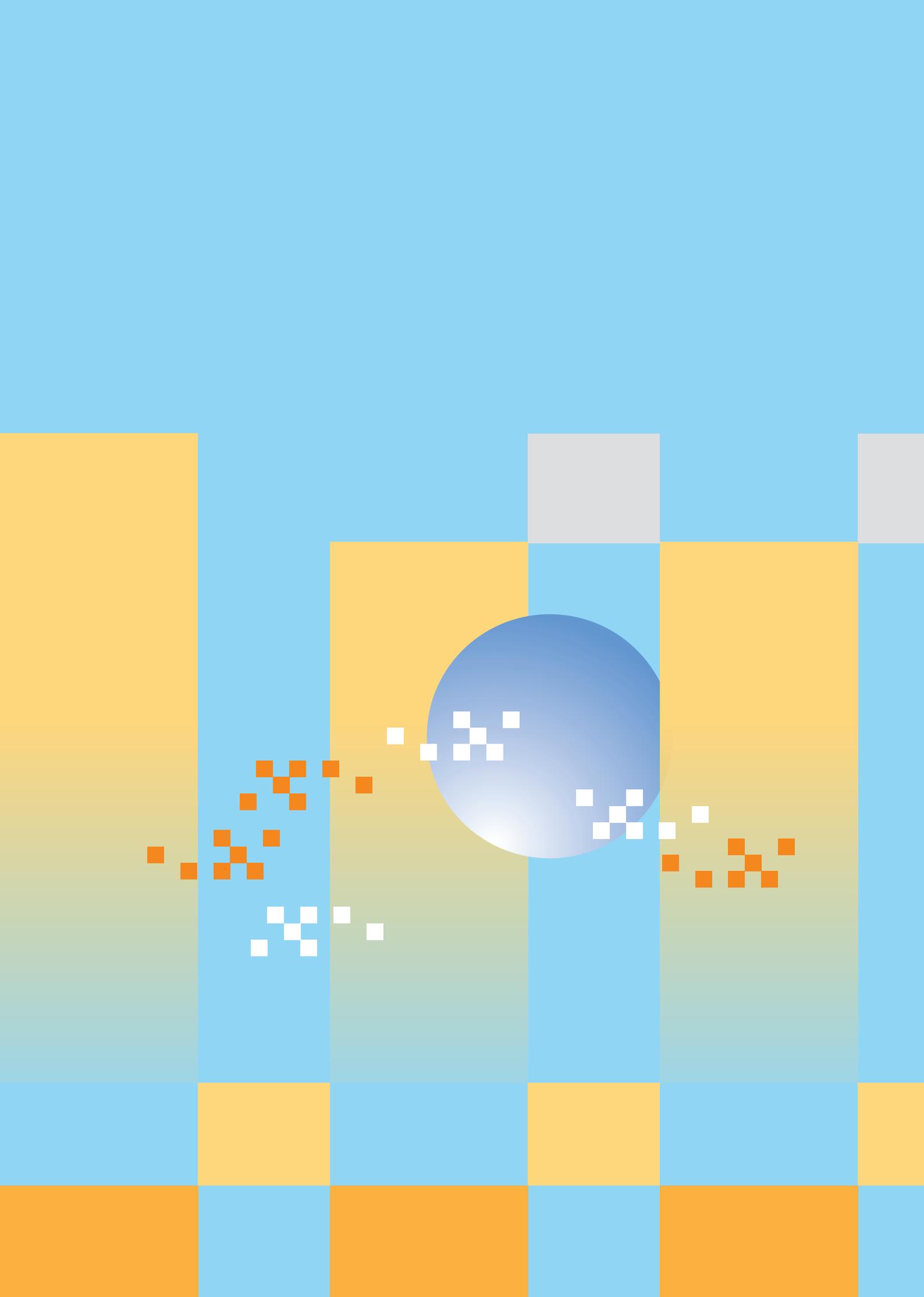
요약하자면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작지만 확실하게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경제적 부족을 늘 느끼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조건 없는 300만원은 유의미한 수준의 도움이다. 하지만 ‘경제적 안전망’이라고 할 만큼 지속가능한 든든함은 아니다. 이 사업이 공익활동을 “2개월” 더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한 응답자는 300만원을 기대치 않았던 “선물”에 비유했다. 선물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경제적 구조는 아니다. 결국 시민들의 기부가 늘어나 단체 재정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등의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변화 없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하다.

한편 “3년 이상”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것으로 경제적 선물 외에도 ‘관계망’과 ‘활동가 정체성의 강화’, ‘쉬는 법을 배움’을 언급했다. 300만원은 일회성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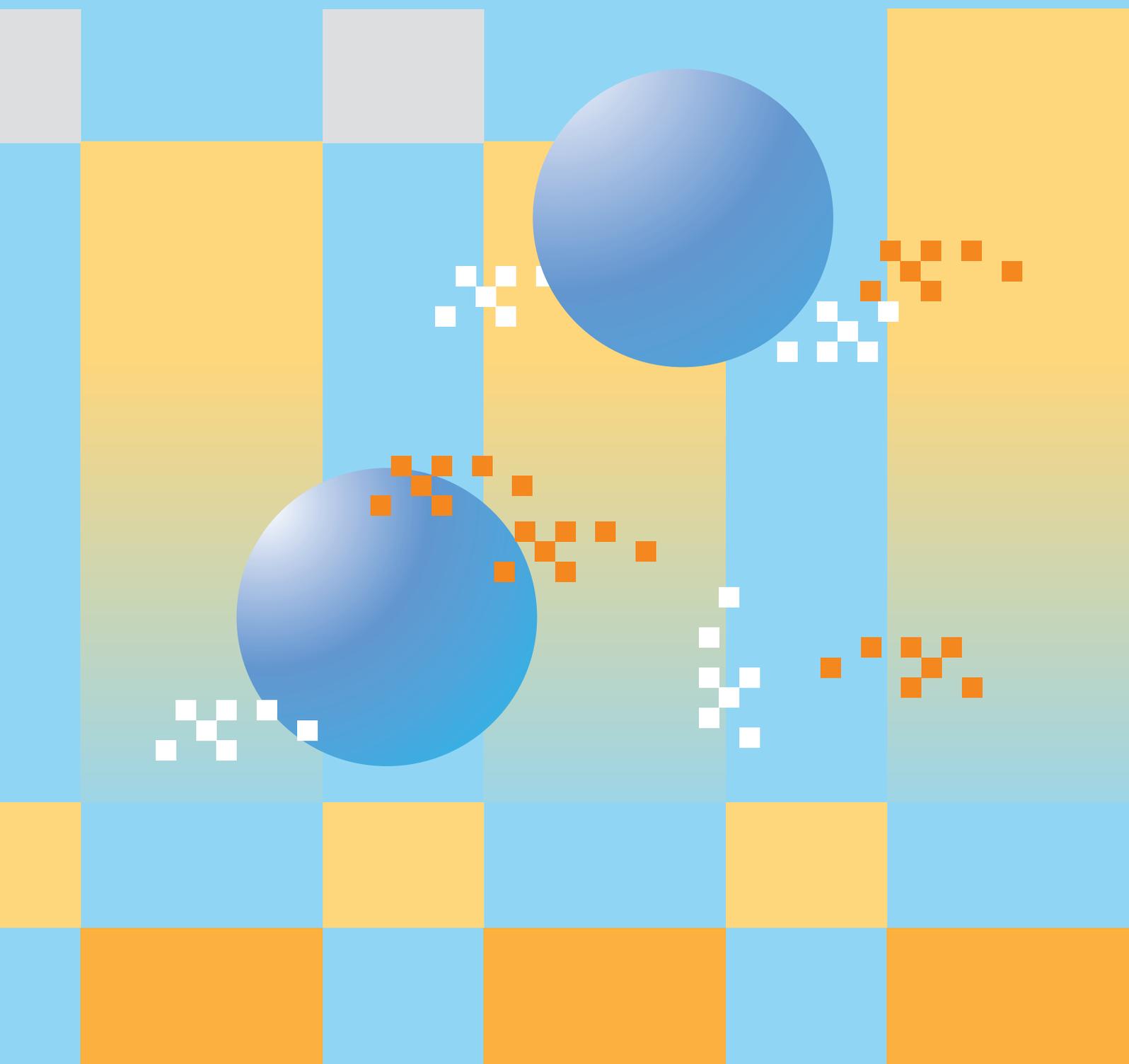
만, 관계와 정체성, 자기 돌봄에 대한 배움은 그 뒤로도 꾸준히 영향을 주며 지속되는 자원이 된다. 이 지원 사업을 계기로 연락하며 지내는 활동가들이 모두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활동가 동료”가 생기거나, 카톡방만 봐도 내 활동가 정체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SNS에 기반한 약한 고리 연결도, 다른 활동가들을 보며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느낀다는 점에서, 무조건 끈끈한 관계망만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관계망 형성은 참여자의 개인적 성향과 맥락에 따라 편차가 커, 조금 더 표준화된 양질의 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설문을 통해 소규모 단체 청년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거, 생계, 물가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당 측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답변이 확실히 많았다. 다만 건강과 휴식권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지원도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 사업의 경험과 의미



# 1 FGI 개요

일시: 2025년 11월 20일 저녁 7시 (120분)  
 장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회의실  
 진행: 백희원 연구원 (듣는연구소)  
 기록: 김고은 연구원 (듣는연구소)  
 참석: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1기, 2기 참여자 6명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FGI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그룹의 보편적인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조사 도구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년 활동가 안전망 사업> 참가자 FGI는 2025년 11월 2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없는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FGI는 조사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기획되었다.

## 1) FGI 진행안 및 질문

[표] FGI 질문안

구분	구체적인 질문 및 프로그램
자기소개	1. 활동 연차와 의제, 요즘 활동하며 보람을 느낀 순간을 소개해주세요.
청년 활동가가 경험하는 어려움	2.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을 포스트잇에 키워드로 적어주세요. (3개 이상)
청년 안전망 활동가 지원사업의 개인적 의미와 개선점	3. 청년 안전망 활동가 지원사업은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a. 다른 활동가들과의 만남은 어떠셨어요?

구분	구체적인 질문 및 프로그램
	b.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c. 아쉬운 지점을 이야기해보자면? d. 해결되지 않는 것은?
<b>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활동 지속가능성 측면의 의미</b>	4. 만약 이 사업이 없었다면 나의 활동은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5. 이야기를 나눠보니 안전망이란 무엇같나요? 포스트잇에 적어봅시다.

이 FGI의 목적은 소규모 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안전망 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증빙없는 300만원과 네트워크는 이들의 삶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경험과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와 같이 청년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공통의 어려움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 안전망 지원사업 과정을 회고하며 해당 어려움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프로그램 상의 아쉬운 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흐름으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활동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안전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 2) FGI 참가자 모집 과정

FGI 참가자로는 1기, 2기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당시 사업에 참여중이었던 3기 참가자들은 인터뷰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경험을 풍성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참가자들로 사업 운영진으로부터 1차 추천을 받았고, 해당 리스트 안에서 성별과 지역 다양성을 고려하여 6명의 FGI 참가자들을 섭외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쓰임, 익명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고 본 FGI에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의 지역, 활동단체 유형, FGI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단체 유형에서 ‘의제운동 단체’란, 특정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단체 (e.g. 환경, 인권)를 의미한다. ‘시민단체’는 조합, 재단과 같이 시민 사회 전반을 위해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로 구분된다. ‘마을활동’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표] 참여자 목록 및 주요 진술 요약

명단	지역	단체 유형	나에게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의미	획득한 가치
참가자A	서울	의제운동단체	덕분에 삶이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	삶의 질 향상
참가자B	서울	의제운동단체	이 사업이 내 활동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고, 활동가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책임감, 정체성
참가자C	지역	시민단체	우리 지역 밖에도 이렇게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있다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관계망
참가자D	서울	마을활동	혼자 일하다가 또래 활동가 친구들을 만나 외롭지 않게 되었다	관계망
참가자E	서울	의제운동단체	사정 더 어려운 활동가가 많아나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 싶었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삶의 질 향상
참가자F	지역	시민단체	공감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 아직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관계망

## 2 FGI 내용 분석

### 가) 청년 활동가가 경험하는 어려움

[표] 청년활동가가 경험하는 어려움 의미 분석

<b>① 지역 청년 활동가가 겪는 3중의 어려움</b>	
1	고인물들의 인맥사회
2	청년 활동가가 없어서 고립됨
3	청년을 자꾸 대상화함
4	수직적인 조직 문화
<b>② 난이도 높고 자원은 부족한 활동가의 일</b>	
1	메뉴얼도 사수도 없이 스스로 헤쳐나감
2	전문적인 의제 학습을 위한 자료 읽기 어려워
3	피해자 지원할 때 심리적으로 힘들다
<b>③ 혼란스러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b>	
1	나는 '멋진 활동가'처럼 살고 있을까?
2	전문성 없이 올라온다가 되어 간다
3	활동가로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b>④ 너무 다른 윗 세대와 소통이 어려움</b>	
1	몇 십 년 이상의 세대 차이로 말이 안통해(지역)
2	좋은 의제와 세상 만드는 방법은 아는데 '사람'은 목적의 부속품처럼 생각함
3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삶은 아님
<b>⑤ 활동가로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한 부재</b>	
1	나는 정말 활동가로서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움
2	가난함에 적응해야 활동가인 걸까?
3	이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활동가로 살 수 있는 건가?

## ① 지역 활동가가 겪는 3종의 어려움

FGI 참가자들은 제각기 다른 주제와 목적으로 일해온 활동가들이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드러난 한 가지 확연한 경향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느냐,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른 차이였다. 청년 활동가들은 모두 단체의 재정 부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인프라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일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어려움은 특히 더 도드라졌다.

☞ *지역에서 활동가로 살아남기 힘들다. 너무 좁아서. 위에 분들이 거의 고역이었다보니까 서로 아는 사이다보니까. 누구 어디 면접봤다며? 너무 빨리 퍼진다. 그래서 정보 얻기도 쉽지 않다. 그 안에서 돈을 제대로 주는 단체 찾기도 어렵고.(참가자 C)*

너무 좁은 게 문제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 수가 적다. 사람이 적은 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하며 만들어진 인맥과 조직, 소위 “고인물”들의 영향력이 고착화 된다. 기존 구성원들에겐 이것이 끈끈한 연대일 수 있지만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인 청년 활동가에게는 외압으로 작용한다. 참가자들은 이 “고인물” 커뮤니티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고 부조리에 저항해도 변화하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활동 자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역 내 다른 단체로 이직을 알아봐도, 이미 윗 단에서 정보가 오고가고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려웠고, 이주를 고민해야 했다.

이에 겹쳐지는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 활동가와 연결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자원이 적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다보니 청년 신입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소수가 된다.

☞ *동료 활동가라는 게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활동을 하면서 혼자라고 느낀 적이 많았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그런 것들에 욕구가 커질 때 이 사업을 만난 것이었다. (참가자 D)*

참가자 D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마을 단체에서 일한다. 단체 회원과 운영진은 있지만 상근 활동가는 본인 한 명 뿐인데다가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연령대 자체가 높은 편이다. 흔치 않은, 소수 청년 활동가의 처지에서 이들은 대상화 된 시선에 노출되는 경험을 했다.

☞ *같이 회의를 여성단체와 하면, 젊은 사람이 두 명 정도 있으니까 디자인, 영상, 회계, 실무...(를 도맡아 하라고 한다) 대상화 되는 거다. 그걸 지적해도,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더라. 인권 운동하는데 내 인권없고, 노동권 운동하는데 내 노동권 없고. (참가자 F)*

지역 활동가와 달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참가자 E는 동료 활동가와 “이 놈의 판 떠나야지”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조직 내에서 “대표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면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동료 활동가가 있기에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있으며 공감대가 쌓인다. 이처럼 ‘좋은 동료들’과 일한다는 것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한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연차가 쌓여도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언어화 하여 해결할 동

료 또래 활동가와 만나기 어렵다. 이는 심정적으로도 외로움과 고립감(참가자 D)을 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관습과 조직 내 폭력에 저항해도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참가자 F)

☞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정작용이 전혀 안 된다. 초반에는 신입활동가가 나가니까 뭐 해 보던데, 그것도 3개월 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리더라. (참가자 F)

결국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은 3종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험을 한다. 청년, 신입이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자원 부족이 첫 번째 어려움이라면 그에 더해 카르텔에 가까울만큼 단단한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 윗 세대의 조직적 압력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상화, 심하게는 위계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에 겹쳐지는 세 번째 어려움은 또래 활동가의 숫자도, 연결될 기회도 부족하다보니 이에 맞설 대항력 자체를 구축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지역 활동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사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였고, 상대적으로 서울 기반 활동을 이어온 참가자들은 다음에 살펴 볼 역량과 전문성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 ② 난이도 높고 자원은 부족한 활동가의 일

☞ 왜 해야 하는지 의제는 명확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효능감이 떨어진다. 능동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어느순간 커다란 산처럼 느껴진다. 어디까지 개척해나가야 하지? 예컨대 디자이너라고 하면, 디자이너들 업무 역량 강화라든지, 큰 회사는 신입사원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활동가는 그런 게 약하지 않나? 조직 내에서도 없고. 그 의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으로서 이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세세한 방법이 너무 없다. (참가자 B)

공익 단체는 대개 뚜렷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의 방향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 업무 체계는 일반적인 노동 시장의 직무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체의 미션에 공감해서 취직하고 활동가가 되었지만, 막상 들어와보니 미션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미션은 일 이 년 안에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지 효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내가 하는 활동이 기여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에 적합한 지원 구조는 찾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 해외 논문이나 해외 법안을 끊임 없이 본다. 영어를 잘못 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 매일 매일 논문 읽고 발제를 한다. 선배 활동가들은 이미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 같다. 나는 왜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한다. (참가자 E)

하지만 실제로 활동가의 일이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 E는 기술, 정책과 연관이 깊은 의제 활동 단체에서 일한다. 계속 변화하는 동향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법안이나 논문 등 전문적인 독해 기술을 요구하는 문서들을 봐야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

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참가자 E에게 처음 이 영역의 운동을 시작한 선배 활동가들은 원래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인다. 자리잡은 교육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이 없으니, “나는 왜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하며 그냥 혼자서 방법을 찾아 고군분투 하는 수 밖에는 없다.

☞ 피해자 지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할 때도 어려움이 크다. 저마다 욕구가 다 다르고, 정체성이 피해자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요새 느끼고 있다. (참가자 F)

현장 당사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가진 대상자와 소통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내 업무 역량을 넘어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감정과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참가자 F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 여기가 첫 직장이고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되지? 하는 생각을 한다. 단순한 일에 역량이 부족해서 잘 못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자책 같은 걸 할 때 힘들다. (참가자 A)

이처럼 활동가의 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많은 부분 환경에서 기인하지만, 당사자인 청년 활동가는 자신을 탓하게 된다. 어렵고 지원 없는 상황은 다음에서 살펴 볼 ‘활동가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역량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 ③ 혼란스러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 활동가가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활동가라는 사람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에 가서 네트워킹 모임을 하면서 ‘나는 활동가는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좀 작게 느껴졌어요. 나는 활동가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본인이 생각하는 활동가가 어떤 이미지예요?) 활동가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에너지가 있나?’ 하면 약한 것 같고, 뭔가를 하는데 진짜 막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까지 또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참가자 B)

참가자들은 활동가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와 자신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의 괴리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활동가는 정의롭게 싸우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인데, 막상 나는 너무 “직장인”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강하고 오래 살아남으신”(참가자 C) 느낌을 주는 선배들이 자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기도 하다. 참가자 E는 스스로를 그냥 시민단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다. 소위 사회운동적인 “액션”보다는 연구와 내근직에 가까운 일하기에 더욱 그렇다. 반면 연대 현장에 나가 타 단체 활동가들과 만나고, “현장”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활동가의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한다고 참가자 A는 이야기했다.

☞ 그렇게 하루하루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활동가가 맞나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고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기자회견이라든지 연대하는 공간에 나가면 조금 활동가의 정체성이 느껴지기는 해요.(참가자 A)

그렇다면 “활동가”를 좋은 직업인으로 느낄 수는 없는 걸까? 참가자 E는 커리어로서 앞날이 막막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처지를 이야기 했다. 소규모 단체의 활동가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일을 한다. 단체 살림을 십시일반 나눠서 하고, 늘 후원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행사, 홍보, 진행, 다양한 일들에서 소프트 스킬을 익히면서 소위 “올라운드”가 되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인정할만한 역량이 맞는지 헷갈린다. 포스터 붙이는 법, 현수막 거는 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소위 “커리어”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쌓아왔고, 어떤 직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투쟁하는 활동가로서의 이미지도 획득하기 어려운 정체성이지만 직업적 전문성 역시 빈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 조직이 작아서 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하다보니 올라운더가 된다. 홍보도 해야 하고..., 논문도 읽어야 하고, 춤도 춰야 하고. 여기서 그만두면 어떤 단체로 가야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뭘까. 내 전문은 뭘까. 내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참가자 E)

참가자 E는 현재 자신의 일과 단체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고 워라밸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단체 대표와 자신 사이에 월급이 2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 이 정도 경제적 보상으로는 “나의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참가자 E)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 월급이 생활비가 안 된다.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다행히 완충되는 게 있다. 그치만 일인가구로 독립을 하게 되면 끔찍한 상황에 닥치게 될 것이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지금도 어려운데 독립하면 얼마나 더 어려워 질까 싶다. (참가자 E)

부족한 경제적 보상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강화한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이직 시 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활동의 가치도 알고 있고, 단체 사정도 알고 있지만 충분한 경제적 보상도 없고, 커뮤니티 내에서 적극적인 인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이 생겨난다.

결국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답없고 끝없는 질문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활동가의 장기적이고 난이도 높은 미션과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은 없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함정이다. 나의 하루 하루가 진짜로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제대로 활동가답게 일하고 있는지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게다가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만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으니, 헌신한 시간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 오늘 나의 일이 구체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실감은 결국 일터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야 하는 것인데, ‘연대 현장’같은 곳에 가면 그나마 그런 느낌이 조금 채워지지만, 그마저도 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직장 내에서도, 월급 명세서에서도, 어디서든 청년 활동가들은 제대로 된 인정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 ④ 너무 다른 윗 세대와 소통이 어려움

☞ 그 세대가 해왔던 방식이 있다. 성공했었던. 운동을 하면 효과가 높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도 이만큼 했는데 너희는 왜 그만큼 성과가 없는지 묻는다. (선배들이) 요즘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참가자 B)

하지만 선배 활동가들은 “요즘 청년 활동가”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때는 해냈던 것들이 왜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이 주도하는 문화 속에서 일하는 청년 활동가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소위 586세대나, 시민사회의 전성기라고도 불리는 90년대와는 미디어 환경이나 인구 구성 등 거시적인 맥락이 달라졌고, 공익 활동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지점에 대해 청년 활동가들은 선배 세대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변화를 위해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조직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직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역부족이다.

참가자 C는 이런 일반적인 세대 차이를 넘어서 더 극단적인 지역의 상황을 공유했다. 단체 회원 대부분이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사이를 연결해 줄 중간 선배 세대 없이 소통하려고 하니 정말 단순한 의사소통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는 지경이다.

☞ 저희 단체에서는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신분증 확인할 때도, 다 뜯어져 있어서 언제 바꾸시냐고 물어보는 지경이다. 진짜 쉽지 않다. (참가자 C)

#### ⑤ 활동가로서 좋은 삶의 양식의 부재

내가 가야하는 길을 먼저 걸어 간 선배 세대의 삶에서 내 미래를 점쳐볼 터인데, 따라갈 수 없는 삶의 양식만 보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진다.

☞ 저희 대표는 3개월치 월급이 밀려있다. 게다가 연차 별로 돈이 안 나온다. 나는 대농고 대표에게 말한다. ‘당신은 집이 부자고. 건물이 있고... 나만 불행하다고. 여기서. (웃음) 나만 독립할 수 없다. 내가 나가도 당신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대표를 역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내 월급 올리라고.’ 가난하게 살면 되던데요. 가난하게 잘 사시던데. (참가자 E)

참가자 E는 함께 일하는 선배 활동가들에게 동료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허물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선배들이라는 뜻이다. 가난을 감내하고 활동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존경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한편으로는 활동가로서 선배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 어쩌면 ‘그들의 집안 배경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덕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자신이 당초부터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청년기까지는 어떻게든 활동가의 삶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주거, 건강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중년의 삶에 들어서면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F도 선배들의 집에 가거나 사정을 보게 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 활동하면서 선배들과 간극을 느꼈던 점이, 저 선배 나보다 추하게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정상성의 궤도를 밟아와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편이든 아내든 더 잘 벌어서 그 돈으로 활동을 하고. 이전 세대는 물질적인 것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탄탄했잖아요. 선배 집에 놀러갔다 가너 무 깜짝 놀랐던 적이 많은 거예요. 번듯한 집에 살고 있어서. 생각해보면 다 집, 차 가진 선배들이 많고 ‘우리 또래 활동가들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활동가들을 만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가자 F)

이것이 정확한 관찰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삶의 질이 담보되는 보편적인 활동가의 삶의 양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 봤을 때 활동가라면 응당 가난을 견디거나, 아니면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과 지식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활동가들이 잘 살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부재하고, 속 편히 나눌 곳도 마땅치 않다. 막연히 선배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난함에 적응해야 하는 것인지, 애초에 버틸 자원이 사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사람은 활동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답 없는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 나) 조건없는 300만원과 네트워킹이 준 영향

[표] 조건없는 300만원과 네트워킹이 준 영향 하위 의미분석

① 더 넓은 공익활동 영역으로 시야 확장	
1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있구나!
2	단체 바깥의 활동가들을 처음으로 알게됨
3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어도 활동가의 삶은 가능하구나
4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딘가에 활동가들이 많이 있구나
② 나의 관계 자본이 쌓이다	
1	이직, 이주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받음
2	비슷한 처지의 또래 활동가와 공감대 형성
③ 조건없는 300만원은 자부심과 인정	
1	사업 자체가 내 활동을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느낌
2	어딘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구나
3	증빙 없는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과 지지감

## ① 더 넓은 공익활동 영역으로 시야 확장

참여자들은 안전망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이 속한 단체나 공익활동 주제 바깥의 활동가들과 만나는 경험이 가치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 기반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큰 효용감을 느꼈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혼자 청년 활동가로 존재해야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의제와 단체가 있고, 청년 활동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경험이었다. 이는 활동가로 계속 살아가려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곳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일어난 일이다. 이전에는 “지금 활동하는 단체” 밖에 몰랐는데, 여러 활동가들을 만남으로써 “어딘가에”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 *기존에 했던 분야에서만 활동을 했다. 대학생 때는 학생운동을 해서 그렇게 밖에 안 그려졌었는데. 눈에 보이는 큰 단체만 다녔었는데. 아, 이렇게 풀뿌리에서도 잔뿌리가 많이 있구나. (참가자 C)*

다양한 의제와 단체들에 대해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사정이 다르고 활동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단체나, 수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은 더 열악한 청년 활동가들의 사정을 듣고 놀라거나 후원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선배 활동가들이 월급을 밀리고 있거나,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간신히 머무는 정도여서 대단히 더 나은 처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겉으로 보서는 모르는 단체들의 속사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여러 활동가들 만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저런 활동을 해주는 활동가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배운다. 동시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활동가도 많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참가자 A)*

청년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맥을 쌓아 본 경험이 많지 않다. 이런 맥락은 참여자 신청서 분석을 통해서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다. 앞 세대 활동가들이 대부분 대학 커뮤니티나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해 활동을 시작했다면 청년 활동가들은 각자 다양한 개인적 계기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활동가로 취직하거나,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불합리한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영리 업계에서 일하다가 봉사 활동을 통해 진입하는 등, 진입 경로도 계기도 제각기 분화되어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였으니, 애초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관계 자체가 크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사업의 ‘네트워킹’ 지원이 주는 큰 효용감을 이해해 볼만 하다.

## ② 나의 관계 자본이 쌓인다

첫 만남과 모임이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는 경험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또래 활동가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면서 공익 활동 영역에서 일종의 관계자본이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

계에 도움을 받은 가장 구체적인 사례는 원래 활동하던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 활동과 삶의 기반을 옮겼던 참가자 F의 사례였다.

“지역을 옮겨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아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업으로 만난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한다. 동료 활동가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었다. 이직할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가분들이 많아서 팁을 좀 주셨다. 돈(지원금 300만원)도 돈인데 새로운 활동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안전망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사적 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 매 순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감수성이나 공감대가 많은 사람들이라 쉽게 친해질 수 있으니까.”(참가자 F)

참가자 F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앞서 이야기한 (가-A 항목 참고) 어려움을 겪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직할 단체에 대해 정보를 얻고, 사적으로도 만나면서 정서적인 연대감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서울이지만 지역에 기반해 활동해 온 참가자 D는 소규모 단체에서 1인 상근자로 일해 왔다. 대표와 운영위원 분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외로움이 컸다. 하지만 안전망 지원사업에서 만난 동료 활동가들과 마음짓기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대화하고 친해지며 이러한 고립감과 외로움이 크게 해소되었다.

“동료 활동가가 생겼다!는 게 엄청 컸다. 이제는 활동가분들이랑 사적으로 만나고 있다. 약속 잡고 보려고 하고 있다.”(참가자 D)

여전히 단체에서는 혼자 일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이나 잡담도 나누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또래 동료 친구들이 생긴 것은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참가자 D는 이 네트워킹 경험을 통해 “한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고, 서로의 활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③ 조건없는 300만원은 자부심과 인정

“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증빙없이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참가자 F)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으로써 인당 300만원의 안전망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지원금의 특징은 일시에 지급되며, 어떻게 써야 한다는 증빙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익단체는 후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국가와 재단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증빙 역시 활동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기 어렵게끔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증빙 요구에 익숙한 활동가들은 안전망 지원금 300만원이 아무 증빙없이, 활동가를 믿어주는 돈이라는 것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활동가로서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시민사회 전반으로부터 인정받고 응원받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참가자 A, 참가자 B) ‘활동가’니까 조건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액션이기 때문이다. 활동가로서 전문성과 역량,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참가자 A와 참가자 B의 말에서 이러한 의미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나조차도 이 활동하면서 효능감이나 의미를 잇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가치 알아봐주고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업 자체가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 활동을 알아봐주는 느낌. (참가자 A)
- ☞ 돈을 받아서 책임감이 되게 생겼어요. 그때(지리산 마음짓기학교)의 추억이 정말 뜨문뜨문 떠오르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활동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나? 하게 돼요. 구조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동기적인 면에서. (참가자 B)

활동하면서 계속 혼자 버텨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 안전망 지원사업을 계기로, 어딘가 찾아보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 사람이 있으리라는 신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고,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소액대출 사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공익활동과 시민사회 전반이 청년 활동가를 응원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믿음의 감각이기도 하다.

- ☞ 활동하다보면 내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많고 도움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됨. ... 내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구나, 이 이후로 알게 되었다. 내가 도움 요청할 곳이 있고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참가자 D)

참여자들은 FGI에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킹과 관계망 지원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300만원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재차 강조했다. 애초에 300만원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이 사업을 신청할 계기도 없었으리라는 것이었다.

## 다) 사업 프로그램 경험과 개선점

[표] 사업프로그램 경험과 개선점

① 마음짓기 캠프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해	
1	추억이 만들어짐
2	3박 4일은 너무 길지만 네트워킹을 위해 필요하다
3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공감대가 쉽게 형성됨
4	그냥 모여 이야기 하다보면 관계가 형성됨
5	공익 활동 전반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됨
6	타 단체를 알고, 활동 소식으로 연결되는 계기
② 안전망 사업, 큰 틀은 그대로 가되 조금 더 길고 넓게	
1	일회성 지원으로 구조적 변화까지 가기는 어려워

2	단체에 지원과정을 알리면서 대상화 당하는 경험을 받음
3	'면접'이란 단어에서 심사 받는 인상
4	수도권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 방문과 네트워킹도 이뤄졌으면
5	조건없는 경제적 지원은 무조건 필요함

## ① 마음짓기 캠프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해

☝ 장소가 너무 좋았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프사로 하고 있다. 4월. 날씨가 미치게 좋았다.  
(참가자 A)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겸한 3박 4일의 마음짓기 캠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캠프는 '마음짓기'라는 제목보다는 '지리산'으로 더 인상깊게 기억에 남아있었다. 갑자기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3박 4일을 보내는 시간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물론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1기에 참석했던 참가자 F는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운영진들을 원망했던 기억을 웃으면서 꺼내기도 했다.

☝ 첫날 참여자들끼리 뒷풀이 하면서 운영진 규탄해야 한다고. 바쁜 시간에 총회랑 결산 준비해야 하는데. 300만원 빌미로 가둬놓고 억지로 네트워킹 시킨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웃음) 그러면서 친해지고. 밤에 눈싸움하러 나가고. 사실 그렇게 가둬놓지 않았으면 안친해졌을 것 같다.  
(참가자 F)

이런 피드백은 사업에도 반영되어 2회부터는 마음짓기학교는 기간은 그대로 가되 조금 덜 바쁜 시기에 진행되게 되었다. 3박 4일 간 강제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른 활동가들과 관계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데는 다른 활동가들도 대체로 동의를 표했다.

☝ 하루 모여서 네트워킹 하라고 하고 헤어졌으면 진짜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 다른 활동가들과 진짜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가자 C)

활동가들은 일상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기에 친해지기가 한결 쉽고,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1인 상근자로 일하다가 활동가 친구들을 사귀게 된 참가자 D는 당시 그날 밤에 이야기 나누고, 게임하면서 함께 한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마음짓기 캠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자연 속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있는 네트워킹의 시간이었다. 길고 솔직한 대화는 활동가들이 서로의 처지와 타 단체의 상황을 알게되고 공익 활동 영역 전반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 ☞ 기존에 있던 단체가 엄청 큰 단체였다보니까, 공익활동 단체가 많기는 한데 재정이 안정적인 단체는 많지 않구나하고 알게 되어버리기도 했다. 인지와 함께 몇몇 단체의 상황을 알게 되니까. 아... 돈을 안 줘요? 아 슬프다. (참가자 C)
- ☞ 동시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활동가도 많네? (모두: 맞아 맞아 맞아) 누군가는 보수를 안 받고 활동한다고 하시고, 우리 조직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참가자 B)

마음짓기 캠프는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또래 동료와 만나고 밀도 있게 친해지는 경험이자, 자신의 활동 반경 너머의 더 넓은 공익활동 영역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인지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관계의 밀도는 다양했고 모든 활동가들이 이 자리에서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서울에서 의제 중심의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은 타 단체를 알게 되고 활동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 이상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사업 참여 전에도 또래 활동가 동료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여건이 다소 다르다.

## ② 안전망 사업, 큰 틀은 그대로 가되 조금 더 길고 넓게

- ☞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주선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서울에서 하면 어디든 가기 편하다는 이 점은 있지만, 지역 활동가도 있는만큼 지역에서 주선을 해주고 지역 활동가가 일하는 것도 같이 구경하고, 어떤 의제도 있는지도 보고 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참가자 F)

마음짓기 캠프를 제외한 네트워킹 행사는 모두 온라인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모두가 쉽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이 거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청년 활동가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비해 네트워킹에서 얻는 효용이 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개선사항이다.

- ☞ 300만원... 내 월급보다 많다... 너무 소중한데, 증빙 없다고 한 게... 너무... 처음 두 달간 돈을 못 썼다.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그래서. 너무 신선했다 그런 지원사업이. 너무 좋았다. (참가자 C)

활동가들은 증빙없는 300만원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자 절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300만원 자체가 활동가들에게 큰 돈이기도 하고, 최초로 참여를 마음먹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300만원이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해주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다른 경험을 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이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있다.

- ☞ 처음 이걸 받았을 때, 단체에서 다른 활동가에게 너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라는 말을 들었다. 모집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굳이 더 집중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참가자 B)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활동가가 소속한 단체의 추천 및 협조가 있어야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서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는 항목이 있다. 이에 참가자 B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동료로부터 시혜적인 질문을 듣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경제적 상황을 기술하는 항목이지만 어쩐지 어려움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고, 단체 추천부터 서류, 면접에 걸친 심사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상화 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는 반복되었다. 다만 이는 막상 '면접'에 참석하여 운영진과 심사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해소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활동가들은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언어와 지원 방식이 이렇게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이런 지점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지원이 일회성에 끝나는 건 어렵다. 어려움이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걸 마주하는 우리 마음을 지원하는 거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있는 거니까.  
(참가자 B)

활동가들은 후속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을 조금 더 지속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관계들이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 활동가가 느끼는 어려움, 특히 정체성의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주지는 않는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라) 청년 활동가에게 필요한 것

[표] 청년활동가에게 필요한 것 하위 의미 분석

<b>① 경제적 지원</b>	
1	1인 가구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과 돈
2	중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3	최소한의 생계비
<b>② 인정과 긍정의 문화와 커뮤니티</b>	
1	활동가 상 제정해서 서로 주고, 올라운더 역량 칭찬하자
2	멋지고, 잘하는 활동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나누자
<b>③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망</b>	
1	나의 처지를 이해해줄 친구
2	조직 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줄 동료
3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사람 덕분에 버티는 게 활동
<b>④ 언어를 만드는 기회와 작업</b>	
1	활동가들만의 언어를 공유하자

## ①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은 FGI 대화시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활동가들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이야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명백하게 필요한 것이어서 이야기거리가 못되었을 수도 있고, 연구자가 함께 있는 모임에서 솔직하게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대체로 생활을 간신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저축이나 병원비와 같은 갑작스런 지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때보다 연차가 더 오르고 연령대도 바뀌었다고 느끼는 활동가들은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청년 활동가와는 또 다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자 B는 대표적으로 주거 불안을 이야기했다.

“20대까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살만한 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돈 안 주는 단체는 힘들 것 같다. ... 중년 가까워지면 집이 없으면 힘들어진다. 필요성이 커지니까. 크게 깨닫게 되고, 집이 있는 분들은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구나 싶다. (참가자 B)

이 지점은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개선점에서 후속 사업이나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맥락과도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어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까지는 이야기 되지 않았지만, 활동가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결국 전제되었던 것이 공익활동단체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상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② 인정과 긍정의 문화와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앞서 자조적으로 이야기한 “올라온더”로써의 활동가도 긍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활동가들 스스로 서로를 칭찬하고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문화가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참가자 B는 일종의 시상식이나, 포상 같은 프로그램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경쟁하여 일등을 쟁취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활동가들 스스로 활동의 전문성을 찾고,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효능감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면 우수활동가 지원처럼. 우수 활동가로 거기서 뽑혀서 돈도 받고, 그러면 각자 프라이드가 높을 테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게 되고. ...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포상을 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서 저기 가고 싶다, 포상도 받고 싶다,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참가자 B)

## ②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망

☞ 기자회견이나 연대하는 공간에 나가면 활동가의 정체성이 느껴지기는 한다. 작년 초, 제작년에 서 작년 넘어가는 시기에 연대활동 많이 했는데 그때 재밌었다. 다른 단체와 연대하면서 효능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내가 활동가고 재밌다고 느낀다. (참가자 A)

참가자들은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안에서도 네트워킹과 관계망 형성이 중요했음을 강조했다. 만, 일상 속에서도 결국 사람, 연대, 현장이 힘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다. 변화와 미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활동가 일인만큼, 구체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지원자나 현장, 동료 활동가들과 연대할 때 힘들어도 더 버티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람을 느낀다.

☞ 너무 신기한 게 나를 힘들게 한 게 사람인데, 버티게 하는 것도 사람이다. 신기하다. (참가자 F)

지원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어 있던 단체를 떠나 타 지역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참가자 F는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버티게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위계적으로 고착화된 조직문화와 활동문화를 유지시키는 선배 세대 활동가라면, 버틸 수 있게 돕는 사람은 롤 모델이 되어주는 선배 세대 활동가나, 옆에서 같은 처지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힘이 되어주는 또래 동료 활동가들, 현장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일 수 있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이 중 또래 동료 활동가들의 관계 안전망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다른 동료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안전망. 뭘 끈끈하게 하지 않아도 아는 것만 해도 안전망처럼 느껴졌다. (참가자 D)

동료 관계망을 통해 동료들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당장 가깝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없더라도 잠재적으로 연락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으로써, 타 단체나 활동가 지원기관을 알아두는 것은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준다. 일상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활동가로써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기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작은 "비밀 언덕"을 갖게 되는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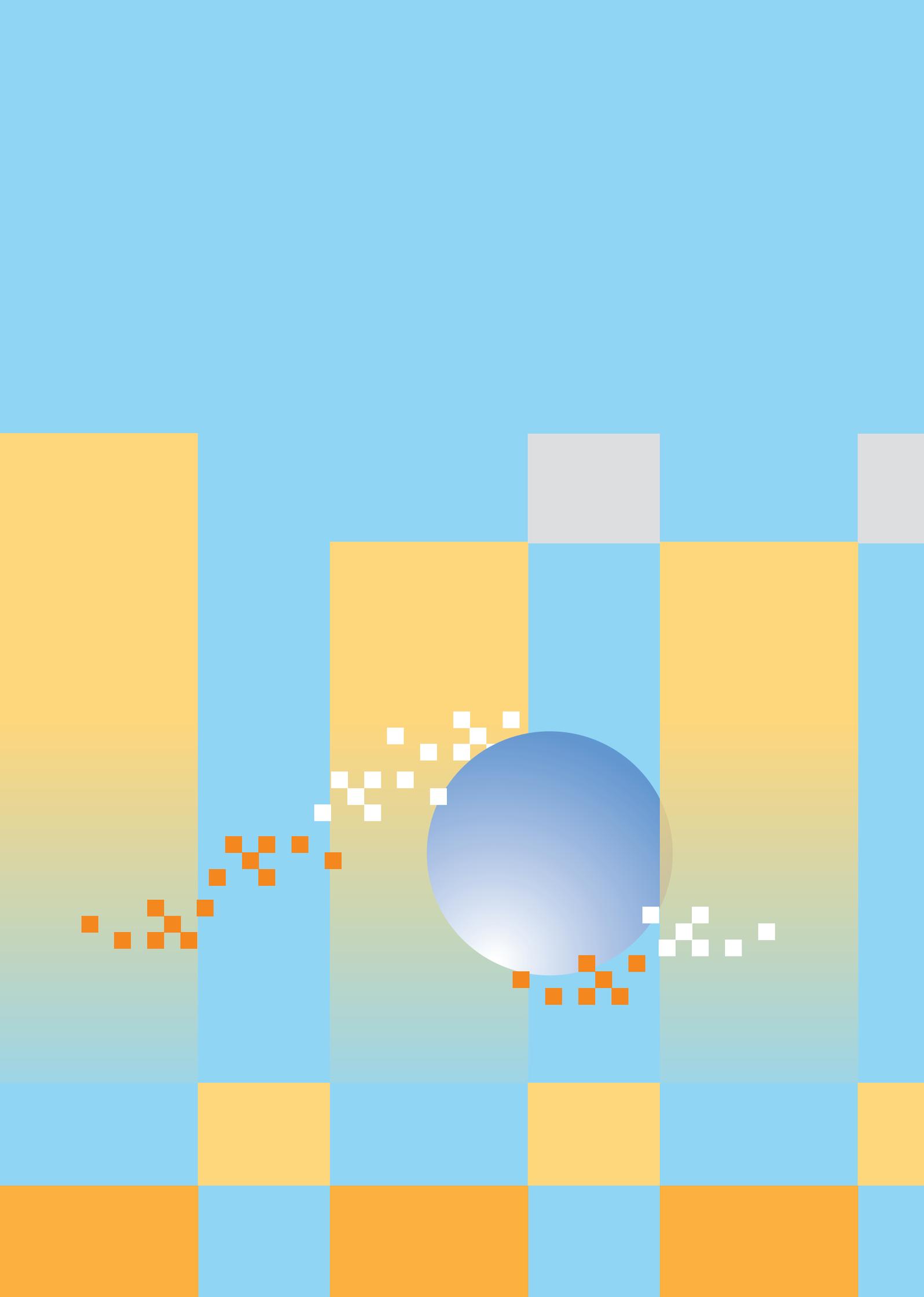
### 3 요약 및 소결

FGI 분석 결과, 청년 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1) 지역 기반에서의 구조적 고립과 위계, (2) 높은 업무 난이도 대비 부족한 자원과 지원체계, (3) 인정·보상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 외/기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고인물’로 굳어진 좁은 인맥사회와 수직적 조직문화 속에서 이동·이직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며, 또래 동료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공동으로 언어화하고 대항력을 만들 기회를 갖기 어렵다. 그 결과 청년 활동가는 단체 내에서 대상화되거나 위계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한다. 동시에 활동의 ‘의제’는 분명하지만 ‘방법’은 불분명한 채로 매뉴얼과 사수, 교육체계 없이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전문 문서 독해, 정책 학습, 당사자 지원 등 실제로는 높은 전문성과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활동임에도 지원이 부족한 환경은 효능감 저하와 자기비난으로 이어진다. 일당백을 해내야 하는 활동가들은 다기능적 ‘올라운더’가 되어가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성인지 확신하기 어렵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생활 조건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만들며 ‘활동가답지 못하다’는 감각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선배 세대와의 간극은 운동의 방식·성과에 대한 기대 차이뿐 아니라, 활동가로서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 부재로 이어져 “가난에 적응해야 활동가가 되는가”,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남는 구조 아닌가”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의 고민을 심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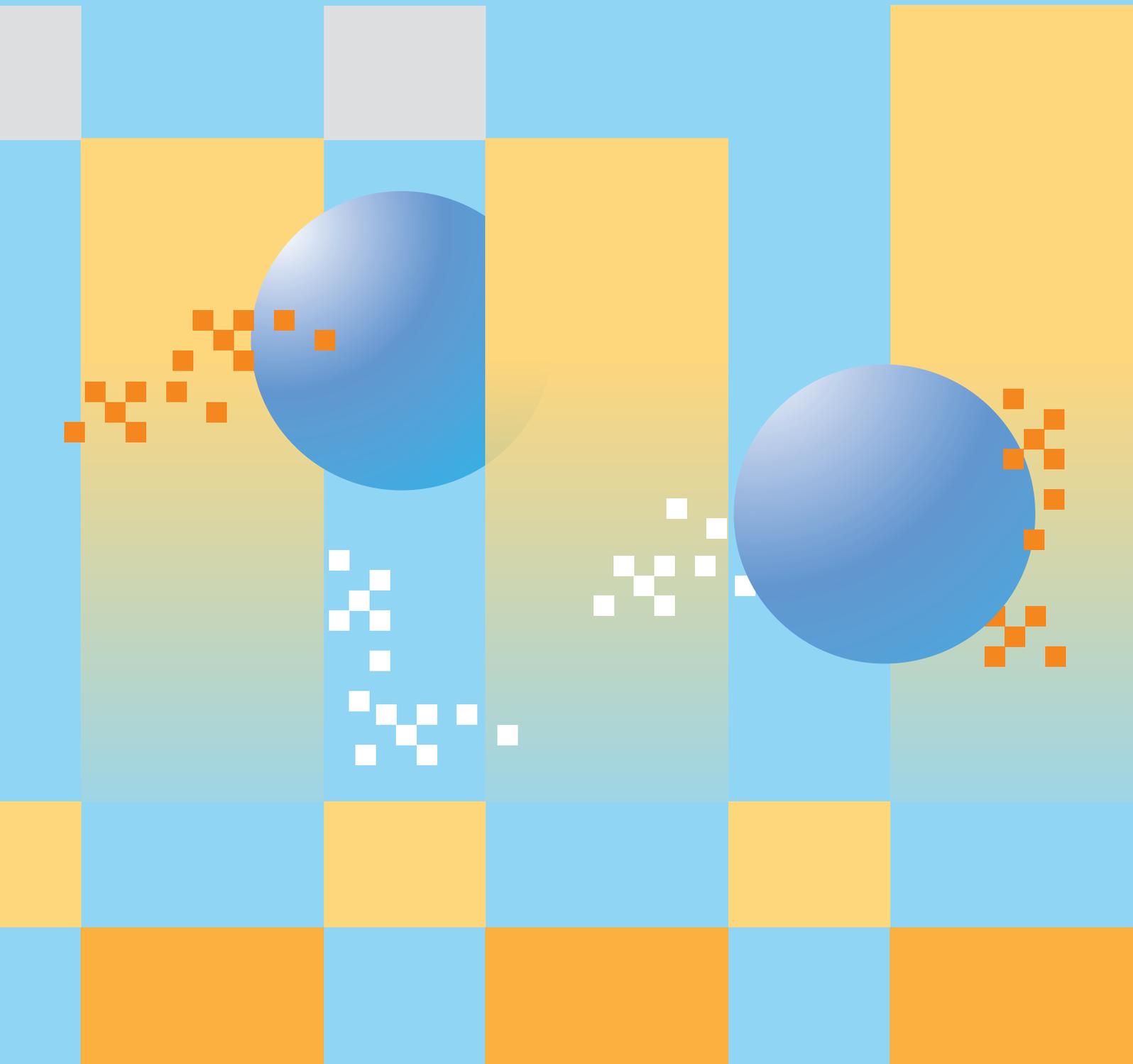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 없는 300만원과 네트워킹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전망’으로 기능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업을 통해 자신이 속한 단체와 영역 바깥의 공익활동 지형을 처음으로 체감하며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얻었고, 또래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대와 관계자본을 축적했다(이직·이주 과정의 정보 공유, 정서적 지지, 지속적 교류 등). 특히 증빙 없는 300만원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완충을 제공하는 동시에, 활동가를 믿고 지지한다는 상징적 인정으로 작동해 자부심과 책임감, 재동기화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사업 경험은 ‘마음짓기 캠프’처럼 밀도 있는 만남의 장이 관계 형성에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지원이 일회성에 머물 경우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또한 추천·심사·면접 등 과정에서 참여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어 언어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며,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지역-지역 간 이동과 현장 방문을 포함한 네트워킹 확장이 제안되었다.

종합하면, 청년 활동가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지속가능한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 둘째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문화와 커뮤니티, 셋째 조직 내·외부에서 버팀목이 되는 또래 관계망, 넷째 경험을 공동의 언어로 만들고 공유하는 기회다. 특히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사람 덕분에 버틴다”는 진술이 보여주듯, 관계망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위계와 고립을 완화하고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견디게 하는 핵심 자원이다. 따라서 향후 안전망 사업은 조건 없는 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유지하되, 관계망 형성(특히 지역 기반 활동가)과 인정의 경험을 더 장기적·다층적으로 설계하여, 개인의 ‘버팀’에 그치지 않고 활동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 1 종합 결론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취약성과 관계망 부재와 같은 다중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조건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된 300만원의 경제적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활동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3박 4일간의 ‘마음짓기학교’를 포함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특히 지역 기반 활동가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타 분야 및 타 지역 활동가들과의 관계 자본을 형성하여 활동 영역의 시야를 넓히고 장기적인 활동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비빌 언덕’이 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계망 형성은 청년 활동가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난이도 높은 업무, 인정 부족, 미래 불확실성 등)을 직접 해결하지는 못했더라도, 청년 활동가 당사자에게 어려움을 마주하고 활동을 지속할 심리적, 사회적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숙련된 5-10년차 인력 부족이라는 공익활동 영역의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져온 청년 활동가들의 조용한 이탈 뒤의 맥락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이야기들의 저장소가 되었다. 이 사업에 지원한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의 지원 당시 신청서와 사전 설문에 드러난 현황, 현재 활동의 지속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과 FGI 분석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우리는 청년 활동가들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청년 활동가들에게 ‘활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39세 이하의 10명 이하 소규모 공익활동단체에 근무 중인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 조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모로 상이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상근·반상근 등 활동 형태와 의제 분야, 조직 규모와 지역 기반이 서로 다르고(수도권/비수도권, 대형/소규모 단체), 직무 전문성도 다르며(당사자 지원/정책·캠페인 등), 활동 경력 또한 저연차부터 중견(1기 참가자 일부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버티기 어렵다”는 상태만큼은 공유하고 있다. 선배 활동가 세대와의 세대 차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단체라는 구조적 여건은 이들에게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한 자기돌봄과 건강의 위기와 소진,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지는 공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게끔 한다.

공통의 어려움은 공통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에게 명백하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다. 이 사업은 참가자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생활비, 부채상환, 의료비 등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숨고를 수 있게 해준다는 효용을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금액은 한 번에, 조건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의미까지 주었다. 참가자들은 증빙이 없는 방식 자체가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신호로 체감되었다고 말했다. 사전·사후 설문조사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FGI에서는 지원금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보다 숨 고르기와 회복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는 서술이 반복됐다. 특히 평소 지원사업의 증빙·정산 구조에 익숙한 활동

가들에게 무조건적 지원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효능감·자부심·책임감의 회복(“조금 더 해볼 수 있겠다”)으로 연결되는 사례로도 드러났다.

한편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대화에서 가장 일관되게 많이 언급되는 것은 “네트워크”라고도 표현되는 “관계적 안전망”의 의미다. 어찌보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300만원의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같은 어려움과 수요를 가지고 공감대를 쉽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제와 위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또래 동료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안전하고 다채로운 관계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적 안전망의 양상은 모두에게 다른 모양과 효용으로 나타난다. 그냥 SNS나 단체 채팅방에 소속되어 소식을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비빌 언덕으로 느껴진다는, 느슨하고 약한 고리로서의 안전망에 대한 만족이 표현되는가 하면, 사적으로도 연락하고 흥금을 털어놓는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증언까지, 다양한 깊이의 관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생겨난다. 표준화 된 관계적 안전망이 명확히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참가자 대다수가 이 사업에서 각자의 처지와 온도에 맞는 연결감은 챙겨갔다고 할 수 있다.

## 2 제언

이 사업에 참가한 청년 활동가들은 모두 이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고 다른 활동가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청년 활동가의 활동이 정말로 지속가능해졌는지를 묻는 질문과 대화들 속에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다. 공익활동영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청년 활동가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활동가들에게 주어지는 도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청년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망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다. 참여 활동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 사업의 중장기적 효용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토대가 마련되는 수준의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성실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모니터링 등의 노력을 통해 그에 담긴 청년 활동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사업의 내외부 적으로 어떤 지원과 실천들이 더 요구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 1) 사업 개선방향 : 후속 지원 연계 및 커뮤니티 강화

사업 차원의 적용점으로는, 첫째,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을 넘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사전·사후 설문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의 감소와 자기돌봄·건강 수준의 큰 폭의 향상은, 증빙 없는 현금 지원이 청년 활동가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에도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직접 지원 방식이 핵심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단기적 완충 역할에 그치지 않기 위해, 지급 방식과 후속 설계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회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기간 이후 선택형 추가 지원(예: 의료·휴식·학습 연계 지원)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재접근 가능한 구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선물’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 가능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과제이다.

둘째,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동료 풀(pool)이자, 청년 활동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3개년 분석 결과, 본 사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은 깊은 협업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온라인 기반의 느슨한 연결과 소수의 친밀한 관계가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관계망 만족도와 정서적 지지, 연대감 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관계의 밀도보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자체가 청년 활동가에게 중

요한 자원임을 보여준다. 서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친구가 되는 밀도있는 관계는 그 안에서 개인의 성향과 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은 그런 관계맺음을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 있는 모임비 지원을 전체 참가자 커뮤니티(이전 기수 포함)로 확대하고, 기수 간 연결을 촉진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 스스로 이 커뮤니티의 의미와 쓸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GI에 따르면 소규모 단체 청년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활동가 정체성의 문제, 미래를 위한 자원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역량 부족의 문제, 현장과의 괴리감, 조직 내 발언권 부족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숨 고를 수 있는 여유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면, 참가자 커뮤니티는 그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을 청년 활동가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가능한 동료 연대 풀로써 의미미한 기반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관 기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학습 모임, 공론장 등 작은 소모임 지원이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참가자 커뮤니티 브랜딩,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설정 등 커뮤니티의 초기 정체성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 진행할 수 있다.

## 2) 시민사회의 공진화 : 조직 체질 개선과 활동가 삶의 질 제고

그러나 청년 활동가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고르게 존재하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는 단일 프로그램 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단체와 조직들의 변화야말로 청년 활동가들의 환경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 중 다수가 조직 문화와 세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사실 조직의 재정적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 활동가의 이탈은 시민사회 전반의 역량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왔다. 단체와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규제 및 모니터링과 함께 소규모 단체의 조직문화 개선, 적정 노동 기준 설정, 의사결정 체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과 더불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조직에서도 활동가의 노동자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시키는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과 수도권 격차, 주거, 물가, 기부 감소, 정책 변화 등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활동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 활동가들은 활동을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적절한 삶의 양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결핍은 가족과 같은 사적 관계망에 의존해야 하는지, 혹은 경쟁적인 방식으로 학력이나 전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갈등하는 청년 활동가에게 기존 공익활동 영역이 제안할 수 있는 ‘활동가다운 적정 삶의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과 사례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활동가들이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를 호혜적이고, 연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더욱 공공연히 이야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 3) 청년 활동가 목소리 및 권한 강화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적 불리함과 저연차의 청년 활동가라는 지위적 불리함이 교차적으로 맞물리면서 조직 문화나, 고착화 된 공익활동가의 노동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방법이 요원해보인다는 정치적 곤경으로도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 활동가들에게 불리한 시민사회의 문화와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공론화와 캠페인 활동, 청년 활동가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한 장과 역할을 제안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 활동가의 목소리 듣기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의 조건 없는 300만원이 어쩌면 이미 그런 역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조건 없는 300만원이 지원금의 의미를 넘어 청년 활동가들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활동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다는 신호로 여겨졌다고 거듭 진술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더 외화하고, 청년 활동가들 곁의 비빌 언덕으로 서주는 일을 더 넓고, 단단하게 다지는 일 자체가 청년 활동가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응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은 청년 활동가들에게 활동을 더 잘하라거나, 힘들어도 버텨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속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망이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결국 공익 활동가 생태계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 청년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더 많은 안전망, 더 넓은 연대,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익활동 생태계의 과제, 또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물론 이 변화는 청년 활동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이를 듣고 대답하고 변화하는 목소리도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 4) 후속 연구 과제

<청년활동가안전망 지원사업>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청년활동가들의 경험이 담긴 사업만큼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청년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청년 활동가들의 관계망이 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구축되는만큼, 상이한 수요와 성향의 청년 활동가들의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에 대한 조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소규모 단체의 조직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 및 조직문화 개선방향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보인다. 더불어 이처럼 조직적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신입 구성원이 의미있는 성장을 하기위한 방법과 환경에 대한 실행 연구 또한 유의미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 활동가의 처지와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문제가 복잡해 지면서 시민사회 생태계 또한 다루는 사회의제 뿐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조직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조직과 새로운 조직, 민주화 이전과 이후, 사회혁신 담론의 등장 이전과 이후 등 각기 다른 흐름 속에 활동가가 된 앞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차이는 더 도드라지는 듯 하다. 차이와 다양성은 변화를 위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바라본 시민사회 생태계 내부의 차이는 아직 언어를 구성하지 못한 청년 활동가들에게 개인화되고 파편화 된 취약성으로 경험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야기되지 않는 개인들의 실패와 이탈이 될 위험이 크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자료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활동가 정체성의 위기’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년 활동가들 스스로를 포함해 누구도 청년활동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가의 정체성의 위기는 앞으로의 2020년대 시민사회의 전략과 정체성, 지속가능성의 위기일 수 밖에 없다. 00년대, 90년대, 80년대에 청년 세대였던 이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수록 이 문제는 더 미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로의존적인 해석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위기를 타개할 실마리는 현재의 청년 활동가들의 관점과 목소리로부터 찾아야 한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활동가라는 직업적 경험은 어떠한지, 또 청년으로서 어떤 세대적 곤경에 처해있는지, 그 두 가지가 교차됨으로써 갖게 되는 관점과 질문은 무엇인지, 청년활동가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어려움은 데이터들로 충분히 확인된다. 그 어려움이 어떤 요인들로 비롯된 것인지 기존의 틀 안에서 유추하는 연구가 아니라, 청년활동가 자신의 경험으로 진술하는 연구, 각자의 취약성을 공통의 해결과제로 재정의할 수 있는 연구, 청년 세대의 목소리로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속가능한 공익 활동의 토대”를 위한 지식과 생태계 학습의 선순환이라는 토대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응원하는 안전망과 연결의 힘

**발행일** 2026. 3. 26  
**발행처**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디자인** 디자인 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2 동영빌딩 202호  
**연락처** 02-6263-6881

**연구기관** 듣는연구소  
**연구집필** 백희원, 김고은

발행처의 허락없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청년활동가 안전망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



#청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응원하는

# 안전망과 연결의 힘